

WEBVTT

00:00:10.373 --> 00:00:13.876

우리 지난 시간에는 형태소에
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.

00:00:13.976 --> 00:00:16.962

이제 형태소를 더해서 단어를
만드는 과정에 대해서

00:00:17.062 --> 00:00:18.299

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18.399 --> 00:00:19.368

단어 형성법이죠.

00:00:19.468 --> 00:00:23.093

단어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
일단 단일이어가 있죠.

00:00:23.193 --> 00:00:27.120

단일어는 그 단어 안에 어근이
하나짜리면 단어라고 합니다.

00:00:27.220 --> 00:00:29.975

그다음 복합어가 있어요.

00:00:30.075 --> 00:00:32.948

이 복합어는 이제 어근
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

00:00:33.048 --> 00:00:35.521

거기에 형태소가 뭔가가
더 붙었다는 얘기인데.

00:00:35.621 --> 00:00:39.761

가령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
굴절 접사라고 하는 것.

00:00:39.861 --> 00:00:42.875

조사라든지 아니면
어미가 붙는 것들은

00:00:42.975 --> 00:00:45.701

이런 복합어를 만들어내는
힘은 없는 거죠.

00:00:45.801 --> 00:00:47.922

바로 다 어근에 들어가는 상황이다.

00:00:48.022 --> 00:00:50.710

일단 조사 같은 경우는 아예
독립된 단어로 보는 거지만,

00:00:50.810 --> 00:00:55.270

어미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
어간과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

00:00:55.370 --> 00:00:58.560

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

단일어로 봐야 됩니다.

00:00:58.660 --> 00:00:59.943
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.

00:01:00.043 --> 00:01:04.138
복합어 안에는 우리 합성어와
그리고 파생어가 있는데.

00:01:04.238 --> 00:01:07.015
합성어는 어근하고 어근이
더해지는 구성.

00:01:07.115 --> 00:01:10.200
그러니까 실질 형태소와 실질
형태소가 더해지는 구성을

00:01:10.300 --> 00:01:11.725
우리는 합성어라고 부르죠.

00:01:11.825 --> 00:01:16.158
그다음에 파생어의 경우에는
접사에다 어근을 더하는 경우인데.

00:01:16.258 --> 00:01:21.822
이때 이제 이 접사는 어근의
앞에 붙는다고 해서 접두사라는

00:01:21.922 --> 00:01:23.216
표현을 쓰고요.

00:01:23.316 --> 00:01:26.441
다음, 어근에다 접사를
뒤에 붙이는 경우인데.

00:01:26.541 --> 00:01:29.262
이때는 이 접사가 어근의
뒤에 붙는다고 해서

00:01:29.362 --> 00:01:31.014
접미사라고 붙게 됩니다.

00:01:31.114 --> 00:01:34.277
접두사의 두 자는 머리 두 자고,
접미사의 미 자는 꼬리 미 자.

00:01:34.377 --> 00:01:37.607
그러니까 용어적으로 봤을 때
어근의 앞머리에 붙느냐,

00:01:37.707 --> 00:01:40.388
어근의 꼬리에 붙느냐에
따라서 접두사, 접미사

00:01:40.488 --> 00:01:42.130
이렇게 용어를 나눠주는 거죠.

00:01:42.230 --> 00:01:46.479
그러면 먼저 파생어 쪽을
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.

00:01:46.579 --> 00:01:48.260

일단 이렇게 한번 보세요.

00:01:48.360 --> 00:01:50.604

합성어나 파생어는 사전에 등재된다.

00:01:50.704 --> 00:01:52.272

그런데 원칙이라고 달아놨잖아요.

00:01:52.372 --> 00:01:55.896

왜 원칙적으로만 그렇다고
얘기하는지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.

00:01:55.996 --> 00:01:59.644

일단 합성어나 파생어는 단어가
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.

00:01:59.744 --> 00:02:02.271

어근에 어근이 붙어서
새로운 단어가 되고,

00:02:02.371 --> 00:02:05.834

어근에 접두사, 어근에 접미사가
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면

00:02:05.934 --> 00:02:09.558

사전에 등재를 해주고, 거기에 대한
뜻풀이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.

00:02:09.658 --> 00:02:13.842

먼저 단일어에 대해서
잠깐 먼저 봐야겠죠.

00:02:13.942 --> 00:02:17.349

단일어를 보면 어근이
하나짜리면 되는 겁니다.

00:02:17.449 --> 00:02:19.201

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 봤어요.

00:02:19.301 --> 00:02:22.220

나, 손, 바다, 하나,
무지개, 할아버지.

00:02:22.320 --> 00:02:24.407

쫄꺄 수 없어, 쫄꺄 수 없어.

00:02:24.507 --> 00:02:26.774

애네는 전부 다 체언입니다.

00:02:26.874 --> 00:02:28.739

품사 한 번 우리 공부했으니까.

00:02:28.839 --> 00:02:30.179

나는 품사가 뭐죠?

00:02:30.279 --> 00:02:31.917

1인칭 대명사.

00:02:32.017 --> 00:02:33.377

손은요?

00:02:33.477 --> 00:02:34.390
명사.

00:02:34.490 --> 00:02:36.356
바다, 명사.

00:02:36.456 --> 00:02:37.918
하나, 수사.

00:02:38.018 --> 00:02:41.884
무지개나 할아버지나 전부 다
명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.

00:02:41.984 --> 00:02:43.644
그러니까 체언들 보는데.

00:02:43.744 --> 00:02:47.902
이런 체언들은 형태소가 단일어라고
하면 형태소가 무조건

00:02:48.002 --> 00:02:49.822
하나짜리여야 돼요, 그렇지요?

00:02:49.922 --> 00:02:53.815
심지어 이렇게 4음절짜리도
역시 더 이상 끊을 수 없는

00:02:53.915 --> 00:02:55.092
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

00:02:55.192 --> 00:02:57.090
물론 과거에는 말이죠.

00:02:57.190 --> 00:03:00.693
과거에는 아버지가 눈에 보입니다.

00:03:00.793 --> 00:03:04.354
잘라내면 할, 이렇게
더해진 겁니까?

00:03:04.454 --> 00:03:05.949
물론 그랬어요.

00:03:06.049 --> 00:03:08.964
과거에는 할은 아니고
한이라고 하는.

00:03:09.064 --> 00:03:11.143
즉, 하다의 활용형으로
한이 있었는데,

00:03:11.243 --> 00:03:13.700
그것이 많구나 크다의
뜻으로 쓰였습니다.

00:03:13.800 --> 00:03:18.115
그래서 아버지의 위를
한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건데,

00:03:18.215 --> 00:03:21.748

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원
의식이 확실히 있지 않으니까

00:03:21.848 --> 00:03:23.289
우리는 잘 모르잖아요.

00:03:23.389 --> 00:03:25.772
그래서 그것을 할아버지라고 해서
한단어로 구축이 된 거예요.

00:03:25.872 --> 00:03:28.775
그러니 지금 현대적인
입장에서는 자를 수 없어요.

00:03:28.875 --> 00:03:33.276
또 무지개 같은 경우를 지우개
할 때의 지우와 개를

00:03:33.376 --> 00:03:35.990
쪼갤 수 있는 것처럼 무지와
개를 쪼갤 수 있느냐.

00:03:36.090 --> 00:03:38.945
이게 무지다 이런 단어에서
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.

00:03:39.045 --> 00:03:41.119
분명 이건 한단어다 이렇게
볼 수 있습니다.

00:03:41.219 --> 00:03:44.650
그래서 형태소를 하나로
처리해야 되는 이러한 놈들은

00:03:44.750 --> 00:03:46.173
단일어가 되겠죠, 어근 하나짜리.

00:03:46.273 --> 00:03:47.727
또 용언도 마찬가지로요.

00:03:47.827 --> 00:03:50.125
그런데 용언의 경우는
체언과 차이가 있죠.

00:03:50.225 --> 00:03:54.008
용언은 동사, 형용사로 나뉘는데
이 안에 어간하고 어미를

00:03:54.108 --> 00:03:55.573
쪼개낼 수 있단 말이에요.

00:03:55.673 --> 00:03:58.853
그래서 보하고 다를, 검하고
다를, 아프하고 다를,

00:03:58.953 --> 00:04:02.735
가파르와 다를, 부르럽과
다를 쪼갤 수 있게 되죠.

00:04:02.835 --> 00:04:05.898
그래서 이 뒤쪽의 다는

기본형을 넣어줬을 뿐이지

00:04:05.998 --> 00:04:08.577

그 다 말고 다양한
어미들이 있었잖아요.

00:04:08.677 --> 00:04:10.247

연결어미도 있고, 그렇죠?

00:04:10.347 --> 00:04:11.476

전성어미도 있고.

00:04:11.576 --> 00:04:16.450

보다, 보고, 보지, 보는, 보아,
보기, 볼 이런 식으로 등등.

00:04:16.550 --> 00:04:18.773

보는 엄청 활용이 많이 됩니다.

00:04:18.873 --> 00:04:21.603

그런데 그렇게 이제
끊어지는 모든 것들.

00:04:21.703 --> 00:04:24.755

그래서 다가 붙었다 는이 붙었다
던이 붙었다 이런 것들이

00:04:24.855 --> 00:04:28.192

붙었다고 해서 붙을 때마다 단어가
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.

00:04:28.292 --> 00:04:31.681

분명 이제 형태소는 나뉘어지기는
하지만 용언의 경우에

00:04:31.781 --> 00:04:36.583

어근은 보, 검, 아프, 가파르,
부드럽 이 부분이 되는 거니까

00:04:36.683 --> 00:04:39.386

어근 하나짜리 단일어라고
봐줘야 되겠죠.

00:04:39.486 --> 00:04:42.063

수식언은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.

00:04:42.163 --> 00:04:46.871

관형사나 아니면 부사
쪽을 얘기하는 거죠.

00:04:46.971 --> 00:04:48.790

옛 같은 경우에는 관형사죠.

00:04:48.890 --> 00:04:50.517

꽤, 부사에 해당하겠죠.

00:04:50.617 --> 00:04:52.700

꽤 좋다, 매우 좋다, 부사.

00:04:52.800 --> 00:04:55.199

허튼 수작, 허튼 생각, 관형사.

00:04:55.299 --> 00:04:56.916

아무런, 관형사.

00:04:57.016 --> 00:05:00.384

시나브로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
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

00:05:00.484 --> 00:05:02.667

순수 고유어예요, 부사가 되겠어요.

00:05:02.767 --> 00:05:05.749

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부 다
더 이상은 자를 수 없는

00:05:05.849 --> 00:05:08.231

역시나 어근 하나짜리라고
볼 수 있습니다.

00:05:08.331 --> 00:05:09.913

독립언이에요.

00:05:10.013 --> 00:05:14.144

역시나 쪼갤 수 없는 그런
감탄사들 여기에 해당하겠죠.

00:05:14.244 --> 00:05:16.912

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.

00:05:17.012 --> 00:05:19.003

지금 보시면 체언에
명사, 대명사, 수사.

00:05:19.103 --> 00:05:21.673

다음에 용언에 동사, 형용사.

00:05:21.773 --> 00:05:23.537

수식언에 관형사, 부사.

00:05:23.637 --> 00:05:25.730

그리고 독립언에 감탄사까지.

00:05:25.830 --> 00:05:29.346

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은
여기 다 걸려 있어요.

00:05:29.446 --> 00:05:34.021

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는
반드시 실질 형태소가

00:05:34.121 --> 00:05:36.842

하나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.

00:05:36.942 --> 00:05:38.931

할 수밖에 없다, 알겠죠?

00:05:39.031 --> 00:05:40.916

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.

00:05:41.016 --> 00:05:43.458

그러니까 어떤 단어라고

하는 것은 어근이 될까?

00:05:43.558 --> 00:05:47.278
또 만약에 어근이나 아니냐
물어본다면 만약에 어근이었다면

00:05:47.378 --> 00:05:51.317
이 어근을 가지고 있는 품사가
뒀었을까를 역추적하는 방법.

00:05:51.417 --> 00:05:53.801
이런 것들은 여러분 유용하게
좀 써주셔야 될 거예요.

00:05:53.901 --> 00:05:56.387
먼저 우리는 파생어를 보겠습니다.

00:05:56.487 --> 00:06:01.501
파생어 쪽을 만들어주는
방식은 접두사와 어근.

00:06:01.601 --> 00:06:05.018
어근과 접미사를 결합하는
방식이라는 건 알았잖아요.

00:06:05.118 --> 00:06:08.153
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
다양한 접두사를 보자고요.

00:06:08.253 --> 00:06:12.048
선생님이 지금 예로 든
것들 역시 다는 아니예요.

00:06:12.148 --> 00:06:13.953
다는 아니예요, 워낙 많으니까.

00:06:14.053 --> 00:06:17.129
그런데 그 워낙 많은 것들을 다
다루기에는 부족하고, 시간이.

00:06:17.229 --> 00:06:20.064
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나올
만한 것, 필수적인 것들,

00:06:20.164 --> 00:06:22.902
그리고 고유어 위주로
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6:23.002 --> 00:06:25.819
먼저 강이라고 하는
접두사가 존재해요.

00:06:25.919 --> 00:06:28.836
뜻은 다른 것이 섞이지
않은, 마른, 억지스러운

00:06:28.936 --> 00:06:30.655
이러한 의미들로 사용이 되는데.

00:06:30.755 --> 00:06:34.910
중요한 건 강 자체가

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

00:06:35.010 --> 00:06:37.417

자기는 힘이 없고요.

00:06:37.517 --> 00:06:39.341

그 뒤에 나와 있는 걸 수식해주는.

00:06:39.441 --> 00:06:43.134

그래서 애가 그렇다고라는 걸
알려주는 거, 애가 그렇다고.

00:06:43.234 --> 00:06:46.626

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관형사랑
부사의 느낌하고 상당히

00:06:46.726 --> 00:06:47.940

유사할 수 있습니다.

00:06:48.040 --> 00:06:49.612

한번 만들어 볼게요.

00:06:49.712 --> 00:06:52.650

강술, 다른 것이 섞이지
않은 그러한 술.

00:06:52.750 --> 00:06:55.381

강소주 이런 건 깡소주
이런 거 아니에요.

00:06:55.481 --> 00:06:57.991

깡소주라는 말, 깡이라고
하는 표현 쓰면 안 돼요.

00:06:58.091 --> 00:06:59.529

강소주입니다, 원래 강소주.

00:06:59.629 --> 00:07:02.801

그런데 우리가 워낙 1음절을 이렇게
된소리로 발음하는 걸 좋아해요.

00:07:02.901 --> 00:07:07.244

말하는 본새 봐라 이래야 되는데
말하는 뽀새 이렇게 발음한다든지

00:07:07.344 --> 00:07:10.568

상판대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
쌍판대기 이렇게 한다든지.

00:07:10.668 --> 00:07:13.082

그래서 우리 1음절을 좀
세게 발음하는 그런,

00:07:13.182 --> 00:07:14.629

이것도 췌게가 아니라 세게죠.

00:07:14.729 --> 00:07:16.854

세게 발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.

00:07:16.954 --> 00:07:19.548

그런 원리 때문에 깡소주,

강소주 이렇게 얘기하는데

00:07:19.648 --> 00:07:21.525
그게 아니라 강소주, 강술.

00:07:21.625 --> 00:07:22.867
그건 무슨 얘기입니까?

00:07:22.967 --> 00:07:24.238
안주 없이 먹는 술.

00:07:24.338 --> 00:07:27.396
다른 것 없이 그것만이라는 의미를
가지고 있는 이 강이에요.

00:07:27.496 --> 00:07:30.299
그다음 마른 기침,
강기침이라고 표현합니다.

00:07:30.399 --> 00:07:32.033
이때의 강은 마른.

00:07:32.133 --> 00:07:33.748
다음, 억지스러운.

00:07:33.848 --> 00:07:36.612
강호령, 억지스러운 호령.

00:07:36.712 --> 00:07:38.856
강울음, 억지스러운 울음.

00:07:38.956 --> 00:07:41.103
이런 단어들이 사전에
등재가 되어 있는데.

00:07:41.203 --> 00:07:44.733
그럼 여기에서 이 강이라고
하는 것은 고유어거든요.

00:07:44.833 --> 00:07:47.212
떨어서 쓰는 경우 없어요.

00:07:47.312 --> 00:07:51.110
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
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

00:07:51.210 --> 00:07:57.323
어떤 특정한 단어를 얘기했을 때
새색시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.

00:07:57.423 --> 00:08:01.311
새색시라고 하는 단어를
생각해 보면.

00:08:01.411 --> 00:08:04.211
이따가 합성어할 때 다룰 건데요.

00:08:04.311 --> 00:08:07.409
새색시라고 하는 단어를
형태소를 나누면

00:08:07.509 --> 00:08:09.051

이렇게 이제 끊어진다는
걸 알잖아요.

00:08:09.151 --> 00:08:12.931

여기에 있는 이 새가 꾸며주는
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

00:08:13.031 --> 00:08:15.000

앞에 있는 거랑 유사한
느낌이라는 거죠.

00:08:15.100 --> 00:08:18.964

그런데 이때의 새는 분명 독립적으로
쓰일 수 있는 관형사임을

00:08:19.064 --> 00:08:20.186

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왜냐?

00:08:20.286 --> 00:08:30.534

떨어서 새 학교, 새 옷과 같이
떨어 쓰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.

00:08:30.634 --> 00:08:33.590

그 뜻이나 이 뜻이나 같은
뜻이거든요, 그렇죠?

00:08:33.690 --> 00:08:36.358

그럼 똑같이 뉴의 의미를
가지고 있는 단어인데.

00:08:36.458 --> 00:08:38.356

즉, 관형사인데.

00:08:38.456 --> 00:08:42.079

이 관형사라면 더 이상 자를
수 없는 어근이 될 것이고,

00:08:42.179 --> 00:08:46.656

이 관형사 어근이 여기에서 온
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.

00:08:46.756 --> 00:08:49.842

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띄어
써야 마땅한 거지만,

00:08:49.942 --> 00:08:53.256

워낙 많이 쓰는 상황에서 이걸
한단어로 붙여준 겁니다.

00:08:53.356 --> 00:08:54.973

이런 걸 우리는 합성어라고
불러줄 거예요.

00:08:55.073 --> 00:08:58.149

그러면 이런 강술,
강기침, 강호령이라는 것도

00:08:58.249 --> 00:09:00.210

선생님, 이거 혹시
합성어 아니에요?

00:09:00.310 --> 00:09:01.833
강이 관형사 아니에요?

00:09:01.933 --> 00:09:05.113
만약에 관형사가 맞다면
그렇다면 합성어가 됩니다.

00:09:05.213 --> 00:09:09.694
그러나 강이 관형사가 아니라는 건
떨어서 꾸밀 수도 있느냐라는 걸

00:09:09.794 --> 00:09:10.789
생각해 보시면 돼요.

00:09:10.889 --> 00:09:14.248
새색시에서의 새는 떨어져 다른
단어를 꾸밀 때는 띄어 썼지만,

00:09:14.348 --> 00:09:18.660
강의 경우에는 떨어져 뭔가를 꾸민다는
건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.

00:09:18.760 --> 00:09:20.567
모두 붙여 쓰는 단어만
떠오르는 거죠.

00:09:20.667 --> 00:09:24.912
그렇다면 애는 홀로는 사용할 수
없는, 떨어져 사용할 수 없는

00:09:25.012 --> 00:09:26.342
품사는 아니다.

00:09:26.442 --> 00:09:27.937
강은 품사는 아니다.

00:09:28.037 --> 00:09:28.983
애는 뭐일 뿐이다?

00:09:29.083 --> 00:09:31.252
그냥 어근에 붙어 쓰이는
접두사일 뿐이다.

00:09:31.352 --> 00:09:32.779
이걸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.

00:09:32.879 --> 00:09:36.003
또 선생님이 지금 강이라고
하는 고유어 접두사를

00:09:36.103 --> 00:09:38.918
하나 예를 들었는데,
한자어로도 강이 있죠.

00:09:39.018 --> 00:09:40.427
한자어로 강.

00:09:40.527 --> 00:09:42.345
예를 들면 강타자, 이런 말 쓰죠?

00:09:42.445 --> 00:09:45.862
강타자, 대개 4번 타자 같은
경우에는 강타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.

00:09:45.962 --> 00:09:49.332
우리는 그럼 강할 강 자라고 하는
그 1음절 한자어가 됩니다.

00:09:49.432 --> 00:09:51.256
이런 것들도 접두사의
기능을 가져요.

00:09:51.356 --> 00:09:54.405
그런데 주로 출제할 때는
한자어보다는 고유어 위주로

00:09:54.505 --> 00:09:56.911
또 출제를 하기 때문에
선생님이 오늘은 이렇게

00:09:57.011 --> 00:09:58.557
고유어로 잡아보려고 합니다.

00:09:58.657 --> 00:10:01.916
개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

00:10:02.016 --> 00:10:03.373
개 접두사.

00:10:03.473 --> 00:10:06.586
질이 떨어지는, 헛된, 정도가
심한 이런 표현인데.

00:10:06.686 --> 00:10:09.225
여러분 개꿈이라는 말
들어보셨죠, 개꿈?

00:10:09.325 --> 00:10:12.757
개꿈 꿔, 개꿈 꿔.

00:10:12.857 --> 00:10:17.584
이거는 합성어일까요, 파생어일까요?

00:10:17.684 --> 00:10:20.250
용꿈 꿔, 용꿈.

00:10:20.350 --> 00:10:22.166
합성어일까요, 파생어일까요?

00:10:22.266 --> 00:10:25.263
물론 여기에 있는 꿈도 쪼갤
수 있습니다, 형태소를.

00:10:25.363 --> 00:10:27.443
꾸와 ㄱ으로.

00:10:27.543 --> 00:10:31.892
꾸다, 꿈을 꾸다 할 때 꾸와
ㄱ으로 쪼갤 수 있는데.

00:10:31.992 --> 00:10:36.443

일단 개꾸다나 용꾸다라고 하는 것
뒤에 ㅁ이 붙은 게 아니라

00:10:36.543 --> 00:10:40.629
꿈이라고 게 먼저 형성이 되고
최종적으로 개나 용이 붙었으니까

00:10:40.729 --> 00:10:42.911
직접 구성 요소.

00:10:43.011 --> 00:10:45.641
마지막에 이제 붙어 있는 구조를
따지게 되면 개하고 꿈,

00:10:45.741 --> 00:10:46.920
용하고 꿈이 되겠죠.

00:10:47.020 --> 00:10:49.671
개꿈, 용꿈 한번 비교해 볼게요.

00:10:49.771 --> 00:10:53.699
용꿈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이 나와야지만
용꿈 쫓아 이렇게 얘기하지

00:10:53.799 --> 00:10:56.800
다른 거 나왔다고 용꿈 쫓아 이렇게
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, 그렇죠?

00:10:56.900 --> 00:11:00.829
돼지꿈 쫓아 할 때에도 강호동
씨가 나왔을 때 돼지꿈 쫓아

00:11:00.929 --> 00:11:02.219
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.

00:11:02.319 --> 00:11:05.175
진짜 돼지가 나와줘야 오늘 뭔가
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.

00:11:05.275 --> 00:11:06.804
로또 사야 될 것 같아, 돼지꿈.

00:11:06.904 --> 00:11:10.145
그런데 개꿈이라고 하는 표현은
좀 다른 것 같아요.

00:11:10.245 --> 00:11:12.638
멍멍이가 나와야지만
개꿈이라고 얘기하느냐?

00:11:12.738 --> 00:11:13.908
그렇지 않죠.

00:11:14.008 --> 00:11:16.307
오히려 멍멍이가 안
나와야, 좀 이상한.

00:11:16.407 --> 00:11:19.101
멍멍이 나오면 되게 귀엽다고
좋은 꿈쫓다고 얘기하지

00:11:19.201 --> 00:11:21.406

개꿈꿨어, 안 좋다고
얘기하지 않잖아요.

00:11:21.506 --> 00:11:23.527

그런데 우리가 평상시
개꿈꿨다고 하는 건

00:11:23.627 --> 00:11:25.447

되게 이상한 꿈을
꿨을 때 얘기합니다.

00:11:25.547 --> 00:11:29.482

따라서 이때의 개는 실제
왈왈은 아닌 것 같아요.

00:11:29.582 --> 00:11:32.525

여기에 해당합니다.

00:11:32.625 --> 00:11:35.485

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
속담을 알고 계세요?

00:11:35.585 --> 00:11:36.851

빛 좋은 개살구.

00:11:36.951 --> 00:11:39.284

빛깔은 굉장히 좋은
살구야, 먹었더니 뽀어.

00:11:39.384 --> 00:11:44.021

그래서 겉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은데
사실상 질이 떨어지는 살구.

00:11:44.121 --> 00:11:45.982

그래서 개살구가 붙는 거죠.

00:11:46.082 --> 00:11:48.004

다음 헛된 꿈, 개꿈.

00:11:48.104 --> 00:11:49.315

이해되시죠?

00:11:49.415 --> 00:11:52.212

그래서 여기에 개라고 하는 것이
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

00:11:52.312 --> 00:11:53.553

이런 접두사가 됩니다.

00:11:53.653 --> 00:11:57.013

역시나 멍멍이랑 상관없기 때문에
떨어쉴 수는 없어요, 이때는.

00:11:57.113 --> 00:11:59.130

정도가 심한, 개고생.

00:11:59.230 --> 00:12:01.083

개가 하는 고생이 아니죠.

00:12:01.183 --> 00:12:03.869

개고생 이런 표현 만들 때
이런 거 전부 다 뭐가 된다?

00:12:03.969 --> 00:12:05.050
파생어가 되는 거죠.

00:12:05.150 --> 00:12:06.627
앞에서의 개는 접두사고요.

00:12:06.727 --> 00:12:08.406
다음 군입니다.

00:12:08.506 --> 00:12:10.994
군, 쓸데없는, 덧붙은.

00:12:11.094 --> 00:12:12.351
예를 볼까요?

00:12:12.451 --> 00:12:13.778
군침, 군식구.

00:12:13.878 --> 00:12:17.034
그래서 군침을 흘렸다고
했는데, 내가 먹을 수는 없고

00:12:17.134 --> 00:12:18.354
계속 침만 흘리는 거잖아요.

00:12:18.454 --> 00:12:20.921
아직 덜 끓었으니까 기다려,
침을 계속 흘립니다.

00:12:21.021 --> 00:12:22.805
그러면 군침이 되는 거죠.

00:12:22.905 --> 00:12:23.995
다음 군식구.

00:12:24.095 --> 00:12:26.166
이거는 쓸데없다고
표현하면 좀 그렇죠.

00:12:26.266 --> 00:12:29.528
그래서 덧붙은, 군식구가 늘었다
해서 덧붙은 식구가 더 늘었다.

00:12:29.628 --> 00:12:31.095
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거예요.

00:12:31.195 --> 00:12:38.378
그러면 군밤을 어떨까요, 군밤은?

00:12:38.478 --> 00:12:41.203
파생어일까요, 이것도?

00:12:41.303 --> 00:12:42.820
그렇지는 않겠죠, 그렇죠?

00:12:42.920 --> 00:12:46.338
왜냐하면 이 군밤에서의 군이
쓸데없는, 덧붙은의 의미가 아니라

00:12:46.438 --> 00:12:48.864

구운 밤이죠, 구운 밤.

00:12:48.964 --> 00:12:53.084

즉, 굶다의 활용형 구운의 준말
개념으로 군이 나온 거기 때문에

00:12:53.184 --> 00:12:55.791

당연히 뜻을 가지고 있는
어근 부분이 될 것이고,

00:12:55.891 --> 00:12:58.925

군밤은 합성어라고
취급하셔야 되는 거죠.

00:12:59.025 --> 00:13:00.400

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.

00:13:00.500 --> 00:13:03.442

그래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
있는 군이어야지만

00:13:03.542 --> 00:13:05.765

접두사구나라는 게
확인이 가능하고요.

00:13:05.865 --> 00:13:07.309

그다음에 날 한번 가볼게요.

00:13:07.409 --> 00:13:10.758

가공하지 않은, 지독한 이런
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,

00:13:10.858 --> 00:13:14.576

접두사인데 보면 날고기,
날도독 이런 거예요.

00:13:14.676 --> 00:13:18.469

그러니까 날고기는 가공하지 않은,
그다음에 날도독이야라는 표현.

00:13:18.569 --> 00:13:21.962

날강도 이러면 지독한 이런 의미를
가지고 있는 날이라는 거죠.

00:13:22.062 --> 00:13:23.662

역시 띄어 쓰지 않습니다.

00:13:23.762 --> 00:13:29.940

그런데 이제 이것도
비교해 보면, 어때요?

00:13:30.040 --> 00:13:34.544

날짐승, 길짐승, 날짐승이라는
표현을 쓸 때 날짐승.

00:13:34.644 --> 00:13:38.636

날짐승은 곧 조류를
뜻하는 거잖아요.

00:13:38.736 --> 00:13:42.265

그러면 이때의 날은
접두사가 아니겠죠.

00:13:42.365 --> 00:13:44.152

어디에서 왔다고 봐야 됩니까?

00:13:44.252 --> 00:13:48.740

애는 날다에서 뜻을 가지고
있는 날인 거죠.

00:13:48.840 --> 00:13:52.394

따라서 날다라고 하는 동사의
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입니다.

00:13:52.494 --> 00:13:56.261

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까 이때는
합성어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.

00:13:56.361 --> 00:13:58.570

이런 경우라면 파생어지만.

00:13:58.670 --> 00:13:59.952

비교할 수 있겠죠?

00:14:00.052 --> 00:14:01.773

그다음, 덧.

00:14:01.873 --> 00:14:05.715

아주 많이 알고 있는 그런
접두사 중의 하나예요, 덧.

00:14:05.815 --> 00:14:08.770

덧버선, 덧대다와 같이.

00:14:08.870 --> 00:14:10.233

덧버선, 덧대다.

00:14:10.333 --> 00:14:11.814

버선, 거듭 신다.

00:14:11.914 --> 00:14:14.680

그다음에 겹쳐서 대다라고
해서 이런 덧인데.

00:14:14.780 --> 00:14:18.844

확실히 애는 띄어쓴다는 걸 생각해볼
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.

00:14:18.944 --> 00:14:20.555

접두사가 잡히는 거죠.

00:14:20.655 --> 00:14:22.974

그리고 우리가 좀 확인해
봐야 되는 건 뭐냐면

00:14:23.074 --> 00:14:27.576

접두사가 뒤에 붙는 품사가
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예요.

00:14:27.676 --> 00:14:30.135

물론 주로 붙는 품사가
정해져 있을 수는 있지만,

00:14:30.235 --> 00:14:33.286

명사, 명사, 명사, 명사 이렇게
막 붙어 있는 걸 보다가

00:14:33.386 --> 00:14:37.598

여기 지금 덧대다와 같이 동사와도
붙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.

00:14:37.698 --> 00:14:41.249

그래서 지금 이런 접두사 같은
경우에는 그 접두사에 따라서

00:14:41.349 --> 00:14:44.990

붙는 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,
무조건 하나의 품사 뒤에만,

00:14:45.090 --> 00:14:48.091

앞에만 붙는다 이러한
기준은 없습니다.

00:14:48.191 --> 00:14:50.494

다음요.

00:14:50.594 --> 00:14:53.539

되, 도로, 다시의
뜻을 가지고 있어요.

00:14:53.639 --> 00:14:57.889

되팔다, 되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
되입니다. 맞죠?

00:14:57.989 --> 00:15:00.714

다음, 뒤.

00:15:00.814 --> 00:15:03.741

마구, 온통, 반대로.

00:15:03.841 --> 00:15:10.548

뒤썩다, 뒤덮다, 뒤받다
여기 한번 잘 보세요.

00:15:10.648 --> 00:15:13.635

여기 보면 뒤썩다,
뒤덮다, 뒤받다인데.

00:15:13.735 --> 00:15:19.086

만약에 제가 뒤돌다를
쓰면 어떨까요?

00:15:20.800 --> 00:15:24.235

사실은 우리는 뒤라고 하는
명사를 알고 있어요, 맞죠?

00:15:24.335 --> 00:15:25.469

명사 알고 있습니다.

00:15:25.569 --> 00:15:27.225

앞과 반대되는 뒤, 명사잖아요?

00:15:27.325 --> 00:15:29.078

선생님, 그러면 뒤 명사네.

00:15:29.178 --> 00:15:30.698

어근이잖아요.

00:15:30.798 --> 00:15:32.533

섞다, 섞, 어근이잖아요.

00:15:32.633 --> 00:15:33.897

합성어잖아요.

00:15:33.997 --> 00:15:38.184

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뒤라고 하는 것은 앞과 반대되는 개념의

00:15:38.284 --> 00:15:40.048

의미를 가진 뒤를 얘기해요.

00:15:40.148 --> 00:15:44.532

뒤돌다의 경우에는 이때의 뒤가 그 앞과 반대되는 뒤가 맞습니다.

00:15:44.632 --> 00:15:48.216

뒤로 돌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, 그렇죠?

00:15:48.316 --> 00:15:52.849

그래서 이 뒤로 돌다라고 할 때에는 이때의 뒤돌다는

00:15:52.949 --> 00:15:55.765

합성어로 처리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.

00:15:55.865 --> 00:15:59.885

그러나 이러한 놈들 같은 경우에는 뒤섞다 특히나 어떻게습니까?

00:15:59.985 --> 00:16:01.476

뒤로 섞다예요?

00:16:01.576 --> 00:16:03.335

아니죠, 마구 섞다예요, 마구 섞다.

00:16:03.435 --> 00:16:05.867

완전히 의미가 뒤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.

00:16:05.967 --> 00:16:07.030

마구 섞다.

00:16:07.130 --> 00:16:11.016

다음, 뒤덮다 그러면 온전히 덮다, 마구 덮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.

00:16:11.116 --> 00:16:13.503

그래서 온통 덮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.

00:16:13.603 --> 00:16:17.837

뒤받다, 반대로 받다라고
해서 이 반대로의 경우에는

00:16:17.937 --> 00:16:20.114

살짝 애랑 비슷한 느낌이
들 수 있어요.

00:16:20.214 --> 00:16:21.744

여기에서 잠깐.

00:16:21.844 --> 00:16:26.040

우리가 접두사나 접미사에
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

00:16:26.140 --> 00:16:28.095

딱 정해져 있는 건 분명 아니에요.

00:16:28.195 --> 00:16:31.544

그래서 사전을 좀 참고하셔서
여러분이 그 지식을

00:16:31.644 --> 00:16:35.407

늘려나가면 좋겠지만, 사실
우리 이제 수능에서는

00:16:35.507 --> 00:16:38.652

이러한 지식을 알아야지만,
외워야지만 푸는 건 아닙니다.

00:16:38.752 --> 00:16:41.964

익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라고
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
00:16:42.064 --> 00:16:44.882

그래서 뒤의 경우에는 최소
위에 두 개 같은 경우는

00:16:44.982 --> 00:16:49.036

절대로 이거는 앞과 반대되는 뒤랑은
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

00:16:49.136 --> 00:16:52.003

이런 두 가지는 파생어로
100% 갑니다.

00:16:52.103 --> 00:16:55.509

그러나 뒤받다나 뒤돌다의
경우에는 조금 곤란하다,

00:16:55.609 --> 00:16:57.128

해석의 차이가 분명
있을 수 있어요.

00:16:57.228 --> 00:16:58.822

그런데 조금 일반적인
해석은 뒤돌다의 경우에는

00:16:58.922 --> 00:17:02.946

뒤로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기

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로 본다?

00:17:03.046 --> 00:17:05.856
합성어로 보는 해석이에요.

00:17:05.956 --> 00:17:08.644
드, 심하게, 높이.

00:17:08.744 --> 00:17:10.143
심하게, 높이.

00:17:10.243 --> 00:17:13.007
그래서 강조의 느낌을 주는
그러한 접두사가 되겠는데요.

00:17:13.107 --> 00:17:16.273
드넓다, 드세다, 드숫다, 맞죠?

00:17:16.373 --> 00:17:20.622
넓다, 세다, 숫다라고 하는 단어가
이미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

00:17:20.722 --> 00:17:24.148
그 앞에 드가 붙어서 심하게
숫다 이런, 높이 숫다

00:17:24.248 --> 00:17:25.537
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.

00:17:25.637 --> 00:17:26.890
그다음에 들입니다, 들.

00:17:26.990 --> 00:17:30.574
야생에 자라는, 야생으로
자라는 들깨, 들국화.

00:17:30.674 --> 00:17:32.062
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.

00:17:32.162 --> 00:17:34.613
만약에 들깨, 들국화 했더니 합성어.
왜요?

00:17:34.713 --> 00:17:37.561
들에서 나는 깨요,
들에서 피는 국화요.

00:17:37.661 --> 00:17:42.516
아니요, 그때 들이라고 하는 게
진짜 공간을 얘기하는 들이었다면

00:17:42.616 --> 00:17:45.542
합성어가 맞겠지만, 이때의
들은 접두사입니다.

00:17:45.642 --> 00:17:49.357
그래서 뜻은 야생의 의미를
가지고 있어요, 아시겠죠?

00:17:49.457 --> 00:17:50.884
그래서 다 그래요.

00:17:50.984 --> 00:17:52.220
들 시리즈는 다 그렇습니다.

00:17:52.320 --> 00:17:55.059
들깨, 들국화, 들장미 이런
것들 전부 다 그래요.

00:17:55.159 --> 00:17:58.910
그래서 들과 반대되는
접두사가 또 존재하니.

00:17:59.010 --> 00:18:00.860
들과 반대되는 접두사가 바로 뭐다?

00:18:00.960 --> 00:18:04.531
참이에요, 참.

00:18:04.631 --> 00:18:06.059
이것도 마찬가지로.

00:18:06.159 --> 00:18:08.816
참이라고 하는 건 참,
거짓이라는 명사가 있잖아요.

00:18:08.916 --> 00:18:09.832
네, 맞아요.

00:18:09.932 --> 00:18:13.073
그런데 그 명사로 쓰이는 참이 아니라
질이 좋은의 의미를 쓰고 있는

00:18:13.173 --> 00:18:15.651
그런 참이 접두사로
존재할 수 있습니다.

00:18:15.751 --> 00:18:17.852
그래서 들깨 있고, 참깨 있고.

00:18:17.952 --> 00:18:19.355
들기름 있고, 참기름 있고.

00:18:19.455 --> 00:18:22.732
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 중에 참기름이
더 비싸고,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18:22.832 --> 00:18:25.462
그래서 이 들이나 참이라고
하는 거 전부 다 접두사로

00:18:25.562 --> 00:18:27.166
처리가 되는 것들이고요.

00:18:27.266 --> 00:18:28.881
그다음에 맨.

00:18:28.981 --> 00:18:32.540
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를 가지고
있는데 맨 한번 볼게요.

00:18:32.640 --> 00:18:36.620

맨발, 맨주먹 할 때 여러분
붙여 쓰죠, 그렇죠?

00:18:36.720 --> 00:18:37.959
붙여 쓰죠.

00:18:38.059 --> 00:18:41.260
그럼 이때의 맨이라고 하는
것은 확실히 접두사가 됩니다.

00:18:41.360 --> 00:18:46.172
그런데 주로 이제 문제를 낼 때
이런 거 비교해줄 수밖에 없어요.

00:18:52.235 --> 00:18:57.431
맨 앞에 앉았다.

00:18:57.531 --> 00:18:59.861
맨 앞에 앉았다 이거
하나만 쓸게요.

00:18:59.961 --> 00:19:02.340
맨 앞에 앉았다고 하면
이 맨이라고 하는 거,

00:19:02.440 --> 00:19:05.103
지금 앞이라고 하는 걸
꾸며주고 있는 뭐예요?

00:19:05.203 --> 00:19:06.588
관형사입니다, 관형사.

00:19:06.688 --> 00:19:10.189
그런데 이 맨이라고 하는
건 가장이라고 하는

00:19:10.289 --> 00:19:11.979
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죠.

00:19:12.079 --> 00:19:14.407
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의미를
가지고 있는 맨이 아니에요.

00:19:14.507 --> 00:19:15.564
의미가 달라요, 그렇죠?

00:19:15.664 --> 00:19:18.036
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장의
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

00:19:18.136 --> 00:19:20.701
관형사이기 때문에 그때는
띄어 써야 되는 겁니다.

00:19:20.801 --> 00:19:24.230
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
그것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

00:19:24.330 --> 00:19:28.459
그런 맨이라고 한다면 접두사이기
때문에 맨발, 맨주먹, 맨손

00:19:28.559 --> 00:19:30.888

이런 식으로, 맨몸 이런
식으로 붙여주게 되는 거죠.

00:19:30.988 --> 00:19:32.366

접두사입니다.

00:19:32.466 --> 00:19:34.878

그다음 민.

00:19:34.978 --> 00:19:38.635

꾸미지 않은, 그것이 없음
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민.

00:19:38.735 --> 00:19:41.266

그래서 민얼굴, 꾸미지 않은
얼굴, 화장하지 않은 얼굴.

00:19:41.366 --> 00:19:44.925

민소매 하면 소매가 없는 상태를
민소매라고 표현하는 거죠.

00:19:45.025 --> 00:19:46.490

민소매 옷 이럴 때 민.

00:19:46.590 --> 00:19:48.804

민달팽이 이런 것들도, 그렇죠?

00:19:48.904 --> 00:19:50.931

이런 데에서 다 출발한 거고요.

00:19:51.031 --> 00:19:52.736

다음 빗.

00:19:52.836 --> 00:19:56.939

빗맞다, 빗금 할 때 잘못
맞다의 의미도 있고요.

00:19:57.039 --> 00:19:59.907

또 기울어진 금 이런 의미를
가지고 있는 빗입니다.

00:20:00.007 --> 00:20:02.938

확실히 띄어쓸 수 없는 접두사
중의 하나가 되겠죠.

00:20:03.038 --> 00:20:06.245

다음 선, 서툰, 충분치 않은.

00:20:06.345 --> 00:20:07.932

떠오르는 어떤 단어 있을까요?

00:20:08.032 --> 00:20:10.735

선잠 같은 거 있겠죠, 선잠.

00:20:10.835 --> 00:20:13.483

그러니까 잠을 막 설쳤어요,
서툰 잠을 잤습니다.

00:20:13.583 --> 00:20:14.913

충분치 않은 잠을 잤어요.

00:20:15.013 --> 00:20:16.775
선잠 잤어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.

00:20:16.875 --> 00:20:19.147
또 선무당 같은 거, 그렇죠?

00:20:19.247 --> 00:20:21.321
선무당이 사람 잡는다,
이런 속담 있잖아요.

00:20:21.421 --> 00:20:24.509
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런
무당이 막 칼춤 추다가

00:20:24.609 --> 00:20:26.186
사람 베고 이럴 수 있잖아요.

00:20:26.286 --> 00:20:27.840
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.

00:20:27.940 --> 00:20:30.954
또 선웃음을 짓다라고 한다면
뭔가 좀 서툰 웃음.

00:20:31.054 --> 00:20:35.374
웃는 게 좀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,
이런 걸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.

00:20:35.474 --> 00:20:37.537
전부 다 접두사 선입니다.

00:20:37.637 --> 00:20:39.186
그다음에 실.

00:20:39.286 --> 00:20:41.538
우리가 이제 바늘과 실
할 때의 그 실 하면

00:20:41.638 --> 00:20:46.214
뉘앙스는 웬지 가느다라고 또는 얇은
이런 느낌이 명사에 있는데요.

00:20:46.314 --> 00:20:47.704
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

00:20:47.804 --> 00:20:50.474
실이라고 하는 게 명사로
쓰는 건 따로 보는 거고요.

00:20:50.574 --> 00:20:52.927
이때의 실, 실개천, 실눈.

00:20:53.027 --> 00:20:57.245
아무리 눈이 작아도 그렇지, 실처럼
생긴 눈은 아니잖아요, 사실상.

00:20:57.345 --> 00:21:00.657
그래서 가느다란의 의미를 가지고
있는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.

00:21:00.757 --> 00:21:04.456

그래서 가느다란 눈, 가느다란
엷은, 이렇게 엷게 가는 천,

00:21:04.556 --> 00:21:09.019

실개천, 물길 이런 것들을 얘기할
때 실이라는 접두사 쓰는 거고요.

00:21:09.119 --> 00:21:10.776

또 알 같은 거 있죠, 알.

00:21:10.876 --> 00:21:12.669

겉이 없는, 진짜.

00:21:12.769 --> 00:21:17.744

그래서 알몸 하면 겉이 없는,
겉을 다 벗긴 그러한 알몸.

00:21:17.844 --> 00:21:19.659

알밤 같은 거, 그렇죠?

00:21:19.759 --> 00:21:22.508

알밤, 알밤 같은 경우에도
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?

00:21:22.608 --> 00:21:24.553

껍질을 벗기고 나서 남은 거.

00:21:24.653 --> 00:21:25.966

그걸 알밤이라고 하는 겁니다.

00:21:26.066 --> 00:21:28.024

다음 알거지라고 하면 진짜 거지.

00:21:28.124 --> 00:21:30.104

알부자 이러면 알이
많은 게 아니에요.

00:21:30.204 --> 00:21:31.410

명사 알이 아닙니다,
분명, 그렇죠?

00:21:31.510 --> 00:21:33.604

접두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.

00:21:33.704 --> 00:21:35.739

또 옛, 아주 익숙한 접두사죠.

00:21:35.839 --> 00:21:38.416

옛듣다, 옛보다와 같이, 그렇죠?

00:21:38.516 --> 00:21:40.300

그러니까 몰래의 뜻을
가지고 있는 옛이에요.

00:21:40.400 --> 00:21:44.431

애도 띄어쓸 수 없는, 혼자 쓸
수 없는 접두사가 맞겠죠.

00:21:44.531 --> 00:21:48.500

그다음에 잔, 가늘고 작은,
자질구레한 했는데.

00:21:48.600 --> 00:21:51.380

잔털, 잔피 이런
것들입니다, 그렇죠?

00:21:51.480 --> 00:21:54.274

그래서 잔털, 가느다라고 작은 털.

00:21:54.374 --> 00:21:59.547

자질구레한 피 했을 때 잔피
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.

00:21:59.647 --> 00:22:03.170

마구, 함부로 짓.

00:22:03.270 --> 00:22:05.210

이것도 대표적인 접두사죠.

00:22:05.310 --> 00:22:08.907

짓밟다, 짓누르다와 같아요.

00:22:09.007 --> 00:22:11.449

치 하면 이제 위로입니다, 위로.

00:22:11.549 --> 00:22:13.133

위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.

00:22:13.233 --> 00:22:15.248

그래서 치뜨다, 치숫다.

00:22:15.348 --> 00:22:16.952

눈을 치뜨다 하면 위로 뜨는 거죠.

00:22:17.052 --> 00:22:18.552

치숫다, 위로 올라가는
겁니다, 그렇죠?

00:22:18.652 --> 00:22:20.097

그래서 치 접두사.

00:22:20.197 --> 00:22:22.192

또 푯, 푯.

00:22:22.292 --> 00:22:24.904

털 익은, 익숙한이라고 했는데.

00:22:25.004 --> 00:22:29.147

푯고추, 푯사랑과 같이 고추나
사랑이라고 하는 어근 앞에 붙어서

00:22:29.247 --> 00:22:32.109

떨어쉴 수 없는 접두사가 되겠죠.

00:22:32.209 --> 00:22:34.824

그런데 한 가지 제가 팁을
드리면, 한 가지 좀 알려드리면

00:22:34.924 --> 00:22:37.021

특이한 구조가 하나가 만들어져요.

00:22:37.121 --> 00:22:40.895

내기라고 하는 접미사를
우리가 알게 될 텐데.

00:22:40.995 --> 00:22:43.385

이 내기라고 하는 접미사가
있습니다, 내기.

00:22:43.485 --> 00:22:46.469

신출내기, 서울내기와 같이
어떤 지방 사람이라든지

00:22:46.569 --> 00:22:50.248

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의 성격을
가질 때 내기라는 접미사를 쓰는데

00:22:50.348 --> 00:22:53.415

풋이라는 게 접두사잖아요, 그렇죠?

00:22:53.515 --> 00:22:56.626

그러면 접두사면 이런
단어가 있잖아요.

00:22:56.726 --> 00:22:58.930

풋내기, 참 저 사람
풋내기야 이렇게.

00:22:59.030 --> 00:23:00.645

되게 특이한 단어예요, 이 단어가.

00:23:00.745 --> 00:23:04.292

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어쨌든
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는

00:23:04.392 --> 00:23:07.652

어근이 하나 이상 존재해야
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.

00:23:07.752 --> 00:23:09.207

원칙적으로 그래요, 그렇죠?

00:23:09.307 --> 00:23:11.757

그런데 풋내기와 같은 경우는
명사임에도 불구하고

00:23:11.857 --> 00:23:14.018

이 안에 어근이 안 보이는 거죠.

00:23:14.118 --> 00:23:15.828

풋은 접두사, 내기는 접미사.

00:23:15.928 --> 00:23:18.941

도대체 왜 이런 구성이 형성됐는가,
되게 의아한 구조이고.

00:23:19.041 --> 00:23:23.125

이런 게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
사실 예외적인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.

00:23:23.225 --> 00:23:25.480

그렇다고 해서 애를 합성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.

00:23:25.580 --> 00:23:26.804
어근이 없기 때문에.

00:23:26.904 --> 00:23:29.225
그래서 애도 파생어로
취급이 되긴 합니다.

00:23:29.325 --> 00:23:30.793
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.

00:23:30.893 --> 00:23:32.225
그다음 한.

00:23:32.325 --> 00:23:36.099
여러분 한을 지금 보시면
한이 큰, 정확한, 한창인

00:23:36.199 --> 00:23:37.657
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,
사실 다른 한도 또 있습니다.

00:23:37.757 --> 00:23:41.188
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
좀 익숙한 쪽으로 갈게요.

00:23:41.288 --> 00:23:44.726
한, 한시름 났어,
큰시름 났다 이거죠.

00:23:44.826 --> 00:23:48.510
한겨울, 정확한,
한창인 이런 느낌.

00:23:48.610 --> 00:23:51.234
한복판, 정확하게 한가운데
이런 거 얘기할 때

00:23:51.334 --> 00:23:53.061
한가운데라는 표현도
마찬가지, 그렇죠?

00:23:53.161 --> 00:23:57.852
한가운데, 한복판, 한겨울, 한시름
이런 표현들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?

00:23:57.952 --> 00:24:00.147
바로 파생어로 봐야 되는 겁니다.

00:24:00.247 --> 00:24:04.386
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

00:24:08.393 --> 00:24:12.668
한집안 사람이야라고 얘기했을
때 이때의 한은 어떨까요?

00:24:12.768 --> 00:24:16.758
과연 저기에 큰, 정확한,
한창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?

00:24:16.858 --> 00:24:17.875

그렇지 않죠.

00:24:17.975 --> 00:24:19.894

하나의 집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

00:24:19.994 --> 00:24:21.955

관형사 한의 뜻을
가지고 있는 거죠.

00:24:22.055 --> 00:24:27.238

예를 들면 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
때 이렇게 띄어쓸 때가 있다면

00:24:27.338 --> 00:24:30.534

이렇게 한, 수관형사의 뜻을
애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.

00:24:30.634 --> 00:24:34.286

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라고
하는 의미로까지 확장된 거죠.

00:24:34.386 --> 00:24:36.571

그래서 애는 합성어라고
보셔야 돼요.

00:24:36.671 --> 00:24:38.326

한집안 같은 경우에는
합성어라고 보셔야 되고.

00:24:38.426 --> 00:24:41.601

또 한 가지 파생어적인 측면으로
또 다른 한이 있는데,

00:24:41.701 --> 00:24:47.245

어떤 게 있었냐면 바깥의라고 하는
뜻을 가지고 있는 한이 있습니다.

00:24:47.345 --> 00:24:49.632

바깥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.

00:24:49.732 --> 00:24:52.489

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.

00:24:52.589 --> 00:24:56.097

한데, 한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

00:24:56.197 --> 00:24:57.589

아마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.

00:24:57.689 --> 00:25:00.215

그 한데라고 할 때
이때의 데는 의존명사.

00:25:00.315 --> 00:25:04.018

그러니까 ~하는 데, ~하는 곳의
뜻을 가지고 있는 의존명사입니다.

00:25:04.118 --> 00:25:07.809

한데라고 하면 바깥의 뜻을

가지고 있는 한이니까

00:25:07.909 --> 00:25:09.439

바깥 공간이 되는 거고요.

00:25:09.539 --> 00:25:13.145

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된
단어가 잠이라고 하는 명사를

00:25:13.245 --> 00:25:15.910

붙여주는데, 이때 사이시옷이
들어올 거예요.

00:25:16.010 --> 00:25:18.620

그래서 한뼉잠이라는 단어가
만들어질 수 있어요.

00:25:18.720 --> 00:25:22.163

한뼉잠 이렇게 되면
바깥에서 자는 잠.

00:25:22.263 --> 00:25:23.491

바깥에서 자는 잠.

00:25:23.591 --> 00:25:27.647

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무리 바깥에서
오래, 늦게 있다 할지라도

00:25:27.747 --> 00:25:30.152

한뼉잠은 자는 거 아니다,
이런 말들이 쓰일 수 있는데.

00:25:30.252 --> 00:25:31.600

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.

00:25:31.700 --> 00:25:34.303

그래서 바깥의라는 뜻을
가지고 있는 거고요.

00:25:34.403 --> 00:25:40.559

그다음에 끼니 밖의, 이런 거
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.

00:25:40.659 --> 00:25:44.101

그래서 끼니 때, 우리가 점심
때, 저녁에 함께 모여서

00:25:44.201 --> 00:25:47.195

가족끼리 먹어야 된다고
한다면 그 끼니 때 밖으로

00:25:47.295 --> 00:25:50.176

밥을 또 차리게 되면
그걸 한을 쓰게 됩니다.

00:25:50.276 --> 00:25:51.849

이거랑 같은 맥락으로
쓰게 되거든요.

00:25:51.949 --> 00:25:55.378

그래서 고유어지만 한동자

이런 단어가 있어요.

00:25:55.478 --> 00:25:59.286
그래서 보면 눈길이라고 하는
이청준의 소설 같은 경우 봤을 때

00:25:59.386 --> 00:26:02.523
거기에 보면 어머니가
아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

00:26:02.623 --> 00:26:05.416
항상 한동자로 밥을 먹는다
이런 말을 쓰거든요.

00:26:05.516 --> 00:26:08.896
그래서 항상 끼니 차려 놓으면
가족들과 밥을 먹는 게 아니라

00:26:08.996 --> 00:26:10.513
늦게 와서 밥을 먹곤 한다,
이런 얘기를 하는데.

00:26:10.613 --> 00:26:13.120
그때 쓰인 단어입니다.

00:26:13.220 --> 00:26:17.095
그래서 이렇게 한뼘잠이나 한동자
이런 것 역시도 파생어는 맞아요.

00:26:17.195 --> 00:26:21.572
파생어는 맞지만, 여러분이 잘 볼
만한 그런 접두사는 아니고요.

00:26:21.672 --> 00:26:24.320
한집안 쪽은 합성어로 보셔야 된다.
왜?

00:26:24.420 --> 00:26:28.281
이 한이 수관형사 한에서의 그
뜻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.

00:26:28.381 --> 00:26:30.747
다음에 헛, 대표적인 접두사죠.

00:26:30.847 --> 00:26:32.447
보람 없는, 잘못.

00:26:32.547 --> 00:26:35.500
헛걸음, 헛살다 이런
단어 만들 수 있고요.

00:26:35.600 --> 00:26:36.920
또 홀, 혼자뿐인.

00:26:37.020 --> 00:26:39.468
홀몸, 홀아비 이렇게
이제 표현을 쓴.

00:26:39.568 --> 00:26:42.758
여러분 하나 오해하시면 안
되는 게 이 홀몸이라는 말은

00:26:42.858 --> 00:26:45.647

임신하지 않은 몸을
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

00:26:45.747 --> 00:26:48.910

그래서 여러분, 홀몸도
아닌데 여기 앉아요.

00:26:49.010 --> 00:26:50.530

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.

00:26:50.630 --> 00:26:53.729

홀몸이라고 하는 건 그때 쓰는 게
아니라 그때는 홀을 쓰셔야죠, 홀.

00:26:53.829 --> 00:26:55.662

그래서 홀몸 이렇게 쓰는 겁니다.

00:26:55.762 --> 00:26:58.335

그래서 아이를 배지
않은 몸은 홀몸이고요.

00:26:58.435 --> 00:27:02.064

홀몸이라고 하는 건 배우자가 없거나
가족, 딸린 사람이 없다고 할 때

00:27:02.164 --> 00:27:03.738

홀몸을 쓰는 거거든요.

00:27:03.838 --> 00:27:06.997

그래서 우리가 홀아비라고
하는 건 아내 없는 아비를

00:27:07.097 --> 00:27:08.237

얘기하는 거잖아요.

00:27:08.337 --> 00:27:10.402

자식을 배지 않은,
이런 의미가 아니에요.

00:27:10.502 --> 00:27:11.922

그래서 이렇게 홀.

00:27:12.022 --> 00:27:14.898

휘, 마구, 심하게 이런 거 있죠.

00:27:14.998 --> 00:27:18.465

그래서 휘감다, 휘날리다 해서
이런 접두사가 있습니다.

00:27:18.565 --> 00:27:19.883

사실 너무 많아요.

00:27:19.983 --> 00:27:22.995

접두사 정말 많은데, 그중의
일부 좀 많이 보이는 것들

00:27:23.095 --> 00:27:24.821

위주로 보려고 했습니다.

00:27:24.921 --> 00:27:27.027
그다음 접미사.

00:27:27.127 --> 00:27:30.240
그런데 이제 우리가 접미사
넘어가기 이전에 이 접두사들은

00:27:30.340 --> 00:27:36.062
사실 뒤에 있는 어근의
품사를 바꾸지는 못해요.

00:27:36.162 --> 00:27:37.339
이해되지요?

00:27:37.439 --> 00:27:39.643
뒤에 있는 어근의 품사를
바꾸지는 못합니다.

00:27:39.743 --> 00:27:41.521
애네 뜨다 품사 뭐죠? 동사죠.

00:27:41.621 --> 00:27:43.571
치뜨다 품사 뭐죠? 동사예요.

00:27:43.671 --> 00:27:45.951
쫓다 동사죠, 치쫓다 동사 됩니다.

00:27:46.051 --> 00:27:48.078
시름 명사죠, 한시름 명사예요.

00:27:48.178 --> 00:27:50.417
몸 명사입니다, 홀몸 명사죠.

00:27:50.517 --> 00:27:51.475
이런 식으로.

00:27:51.575 --> 00:27:53.815
살다 동사죠, 헛살다 동사 됩니다.

00:27:53.915 --> 00:27:57.041
그러니까 이런 식으로
원래 동사였던 것이 앞에

00:27:57.141 --> 00:28:00.105
접두사 붙었다고 해서 품사가
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.

00:28:00.205 --> 00:28:01.131
이해되지요?

00:28:01.231 --> 00:28:07.137
그래서 접사를 나눠줄 때 그런
구분해주는 경우가 있어요.

00:28:07.237 --> 00:28:12.338
지배적 접사와 한정적
접사라고 해서.

00:28:17.515 --> 00:28:21.211
어근에 의미를 부여하는 점에서는
접사는 다 똑같은 거니까

00:28:21.311 --> 00:28:29.011

어근의 품사를 바꾸지는 못하는 기능.

00:28:29.111 --> 00:28:31.114

그게 이제 한정적 접사가 되는 거고요.

00:28:31.214 --> 00:28:38.246

그다음에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것이

00:28:38.346 --> 00:28:44.236

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.

00:28:44.336 --> 00:28:51.150

그래서 경우에 따라 한정적 접사는 접두사가

00:28:51.250 --> 00:28:55.513

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지배적 접사는 접미사군요.

00:28:55.613 --> 00:28:56.979

그렇지는 않아요.

00:28:57.079 --> 00:29:00.461

접미사의 경우에는 어쩔 때는 이렇게 한정적 접사로 가고요.

00:29:00.561 --> 00:29:02.141

어쩔 때는 지배적 접사로 가고.

00:29:02.241 --> 00:29:04.604

그러니까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건 접두사의 경우가

00:29:04.704 --> 00:29:07.854

한정적 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

00:29:07.954 --> 00:29:10.782

접미사는 여기도 여기도 다 존재할 수 있다는 점.

00:29:10.882 --> 00:29:13.159

그래서 이제 접미사를 볼 텐데.

00:29:13.259 --> 00:29:17.510

그래서 접미사를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

00:29:17.610 --> 00:29:20.664

그래서 그 접미사가 붙으면 품사가 뭐가 되느냐.

00:29:20.764 --> 00:29:22.377

이걸 좀 잡아보려고 해요.

00:29:22.477 --> 00:29:24.148

그것도 일부 예를 좀

들려고 합니다.

00:29:24.248 --> 00:29:25.666
먼저 개요요.

00:29:25.766 --> 00:29:29.516
개가 뒤에 붙으면 명사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, 명사로.

00:29:29.616 --> 00:29:32.829
그래서 사람이나 도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 아시죠?

00:29:32.929 --> 00:29:34.783
예문 볼까요?

00:29:34.883 --> 00:29:37.656
코흘리개, 날개, 지우개.

00:29:37.756 --> 00:29:44.259
그러면 이견 형태소를 나누면
코, 흐르다, 이, 개 해서

00:29:44.359 --> 00:29:45.710
네 개나 나와요, 네 개나.

00:29:45.810 --> 00:29:49.160
그런데 어쨌든 코흘리 그리고
뒤에 개가 붙었다는 건데.

00:29:49.260 --> 00:29:53.618
이 개가 붙음으로써 코를
흘리는 아이라고 하는 의미가

00:29:53.718 --> 00:29:54.598
더해지는 거죠.

00:29:54.698 --> 00:29:57.627
그래서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로
이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.

00:29:57.727 --> 00:30:01.396
따라서 이때의 개가 지금 접미사
기능, 사람하는 접미사 기능인데.

00:30:01.496 --> 00:30:03.152
코흘리다라고 하는 그런 앞에
코흘리다에다 개가 붙은 거니까

00:30:03.252 --> 00:30:09.715
코흘리다는 어찌 됐든 동사로
봐야 되는 거잖아요.

00:30:09.815 --> 00:30:12.719
그런데 그 동사를 명사로
바꿔버린 겁니다.

00:30:12.819 --> 00:30:15.646
다음, 날개의 경우 날다 동사죠?

00:30:15.746 --> 00:30:18.693

날다에서의 날은 동사에서
나온 어근이에요.

00:30:18.793 --> 00:30:21.487

그런데 그 동사 어근의
품사를 뒤로 바꿔버렸다?

00:30:21.587 --> 00:30:23.790

날개라고 하는 명사로
바꿔버린 거죠.

00:30:23.890 --> 00:30:26.968

지우개 역시 동사를
명사로 바꿔버렸습니다.

00:30:27.068 --> 00:30:30.193

그래서 개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
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.

00:30:30.293 --> 00:30:32.357

칼 한번 가볼까요, 칼?

00:30:32.457 --> 00:30:34.367

상태나 바탕을 나타내는 칼.

00:30:34.467 --> 00:30:37.200

맛칼, 빛칼, 성칼, 맞죠?

00:30:37.300 --> 00:30:40.553

그런데 이러한 칼, 칼, 칼
붙었는데 맛이나 빛이나

00:30:40.653 --> 00:30:43.853

또 성이라고 하는 건 1음절
한자어가 되는 거예요.

00:30:43.953 --> 00:30:45.652

성질 할 때 그 성입니다.

00:30:45.752 --> 00:30:48.155

그러니까 어쨌든 애네가 다
어근이 되어 버리는데.

00:30:48.255 --> 00:30:52.150

어근 뒤에 붙어서 이러한 뒤양스를
보태주고 끝나는 겁니다.

00:30:52.250 --> 00:30:56.084

자체로 떨어져 쓸 수
있는 품사는 아니죠.

00:30:56.184 --> 00:30:57.601

접미사인데.

00:30:57.701 --> 00:31:00.279

애네는 지배적 접사는 아니잖아요.

00:31:00.379 --> 00:31:01.488

한정적 접사죠. 왜?

00:31:01.588 --> 00:31:03.506

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명사잖아요.

00:31:03.606 --> 00:31:06.923

명사들을 명사로 만들어 준
거니까 품사를 바꾸는 힘은

00:31:07.023 --> 00:31:08.692

여기에서는 없었던
말이에요, 그렇지요?

00:31:08.792 --> 00:31:09.961

또 곧 가봅시다.

00:31:10.061 --> 00:31:11.517

전문적으로 하는 사람.

00:31:11.617 --> 00:31:15.693

나무꾼, 사냥꾼, 일꾼 이런
식으로 단어가 만들어지죠.

00:31:15.793 --> 00:31:20.034

그래서 나무, 사냥, 일, 명사를
전부 다 그러한 사람이라는 특성을

00:31:20.134 --> 00:31:23.504

더해주면서 단어를 더
파생해서 만들었고요.

00:31:23.604 --> 00:31:25.393

다음, 내기.

00:31:25.493 --> 00:31:27.485

아까 풋내기 했을 때 말씀드렸죠.

00:31:27.585 --> 00:31:30.749

지역 사람으로 서울내기,
시골내기 이렇게 쓸 수 있고요.

00:31:30.849 --> 00:31:33.528

그러한 특성을 가진
사람, 신출내기.

00:31:33.628 --> 00:31:38.438

처음 들어온,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
해서 신출내기, 이런 표현 쓰죠.

00:31:38.538 --> 00:31:42.103

님 같은 경우에 이제 높임을
나타내는 대표적인 접미사인데.

00:31:42.203 --> 00:31:43.310

그래서 만드는 거죠.

00:31:43.410 --> 00:31:46.039

사장님, 달님, 해님 이런
식으로 만들 수 있다.

00:31:46.139 --> 00:31:47.622

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해요.

00:31:47.722 --> 00:31:51.468

아까 전에 제가 합성어든
파생어든 만들어진 단어라면

00:31:51.568 --> 00:31:57.043

원칙적으로라면 사전에
등재가 되어야 되는데.

00:31:57.143 --> 00:31:59.378

다 등재할까요?

00:31:59.478 --> 00:32:02.973

사장님, 사전에 있을까요, 사장님?

00:32:03.073 --> 00:32:07.409

과장님 있을까요, 선생님 있을까요?
없죠.

00:32:07.509 --> 00:32:08.813

왜 없을까요?

00:32:08.913 --> 00:32:11.869

그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걸까요?
그건 아니죠.

00:32:11.969 --> 00:32:14.766

원칙적으로 좀 힘들어요,
불가능하지 않습니까?

00:32:14.866 --> 00:32:16.814

예를 들면 수사예요.

00:32:16.914 --> 00:32:20.180

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
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

00:32:20.280 --> 00:32:21.791

다 나옵니다, 사전에.

00:32:21.891 --> 00:32:24.218

열하나, 열둘까지 제가
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.

00:32:24.318 --> 00:32:25.727

열셋이 아마 없을 거예요.

00:32:25.827 --> 00:32:27.272

열셋, 열넷, 열다섯 없습니다.

00:32:27.372 --> 00:32:29.338

왜 열셋, 열넷, 열다섯
안 넣었습니까?

00:32:29.438 --> 00:32:30.750

그러면 스물다섯 있을까요?

00:32:30.850 --> 00:32:32.118

서른다섯은요?

00:32:32.218 --> 00:32:34.417

어떻게 그걸 사전에 다 넣겠어요?

00:32:34.517 --> 00:32:36.168

그럼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.

00:32:36.268 --> 00:32:39.607

또 그냥 우리가 양수사를
얘기했을 때 한자어 계열

00:32:39.707 --> 00:32:41.386

일, 이, 삼, 사,
사전에 다 있잖아요.

00:32:41.486 --> 00:32:43.701

그런데 이백이십삼 이런
거 사전에 있겠습니까?

00:32:43.801 --> 00:32:45.361

있을 리가 있나요.

00:32:45.461 --> 00:32:48.772

사전에 수만 넣다가 아직도
넣고 있는 중이어야 되고,

00:32:48.872 --> 00:32:50.377

계속 넣어야 되고, 사전은 무한.

00:32:50.477 --> 00:32:51.618

그럴 수 없죠.

00:32:51.718 --> 00:32:54.934

그렇다고 해서 이백오십삼이
수사가 아니냐.

00:32:55.034 --> 00:32:56.215

아니죠, 수사죠.

00:32:56.315 --> 00:32:59.380

결국 뭐냐면 어쩔 수
없는 한계가 있어요.

00:32:59.480 --> 00:33:03.797

그래서 규칙성만 만들어준 상태에서
당연히 이진 수사로 인정하고.

00:33:03.897 --> 00:33:05.394

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.

00:33:05.494 --> 00:33:09.004

님이라고 하는 접미사는
파생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

00:33:09.104 --> 00:33:11.944

그걸 사전에 다 등재한다는
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

00:33:12.044 --> 00:33:15.418

세상에 직책이 얼마나 많은데
거기다 다 집어넣습니까?

00:33:15.518 --> 00:33:18.915

이상님, 계장님, 실장님,
팀장님 다 넣어야 되잖아요.

00:33:19.015 --> 00:33:22.160

그런 걸 사전에 다 등재하는
건 원칙적으로 어렵다.

00:33:22.260 --> 00:33:25.020

따라서 님이라는 접미사의
정보만 딱 알려주고

00:33:25.120 --> 00:33:29.218

그때 님 같은 거 찾아보면
예문으로 이렇게 사장님,

00:33:29.318 --> 00:33:32.417

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
단서를 몇 개 준단 말이에요.

00:33:32.517 --> 00:33:36.273

그럼 이런 틀과 더붙어서
오케이, 만들 수 있겠군요이라고

00:33:36.373 --> 00:33:37.791

생각하시면 돼요.

00:33:37.891 --> 00:33:39.994

파생성이 워낙 강한 것들은.

00:33:40.094 --> 00:33:42.955

그래서 꾀도 마찬가지로.

00:33:43.055 --> 00:33:45.554

사전에 사랑꾼이라는 단어는
존재하지 않아요.

00:33:45.654 --> 00:33:47.528

그런데 요즘에 그런 말
많이 쓰던데요, 그렇지요?

00:33:47.628 --> 00:33:49.779

저 사람 정말 사랑꾼이야.

00:33:49.879 --> 00:33:52.753

그런데 사랑꾼이라는 단어를
쓰면 돼요, 여러분.

00:33:52.853 --> 00:33:54.076

만들면 되는 겁니다.

00:33:54.176 --> 00:33:55.331

그런데 왜 그러냐.

00:33:55.431 --> 00:33:58.181

꾼이 접미사이기 때문에 역시나
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는

00:33:58.281 --> 00:34:00.919

의미의 뜻을 만들어서
쓰시면 되는 거예요.

00:34:01.019 --> 00:34:05.196

단, 사전에 이거는 나무꾼, 사냥꾼,

일꾼은 사전에 들어가거든요.

00:34:05.296 --> 00:34:07.395

그런데 사랑꾼은 들어가
있지는 않아요.

00:34:07.495 --> 00:34:13.110

애는 최소한 님보다는 좀
쓰는 경향이 줄어들기 때문에

00:34:13.210 --> 00:34:15.335

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은
사전에 넣어주는 거죠.

00:34:15.435 --> 00:34:17.348

이 판단은 우리가
하는 건 아니에요.

00:34:17.448 --> 00:34:20.706

그래서 사전을 만드는 분들이
고민하고 이 정도면

00:34:20.806 --> 00:34:22.647

대표성을 가지고
있으니까 넣어줍시다.

00:34:22.747 --> 00:34:25.378

이건 너무 파생성이 강하니까
못 넣겠죠, 그냥 뺏시다.

00:34:25.478 --> 00:34:28.985

이런 것들은 결정하겠지만,
적어도 여러분이 사전에 없다고

00:34:29.085 --> 00:34:32.718

쓰면 안 되고, 사전에
있어야지만 쓴다고 생각하는

00:34:32.818 --> 00:34:35.394

그 생각은 파생어에
있어서는 잘못된 거다.

00:34:35.494 --> 00:34:37.362

다음 둥이입니다.

00:34:37.462 --> 00:34:40.517

귀염둥이, 바람둥이 이런
성질을 가진 사람의 의미로

00:34:40.617 --> 00:34:42.408

둥이라는 접미사 끊어내셔야죠.

00:34:42.508 --> 00:34:45.123

들, 이것도 마찬가지로.

00:34:45.223 --> 00:34:47.153

파생성 어마어마하잖아요.

00:34:47.253 --> 00:34:52.527

책들, 나무들, 씹니까, 안 씹니까?
붙여줬죠.

00:34:52.627 --> 00:34:54.679

그럼 그때의 들이
뭐냐고요, 접미사예요.

00:34:54.779 --> 00:34:59.329

그럼 접미사, 세상에 ~들,
~들, ~들 못 넣잖아요.

00:34:59.429 --> 00:35:02.409

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수를
나타내는 접미사라는 정보만

00:35:02.509 --> 00:35:03.880

딱 주고 끝나는 겁니다.

00:35:03.980 --> 00:35:06.556

너희들, 사람들, 그들 이렇게
만들면 되는 거고요.

00:35:06.656 --> 00:35:08.018

다음 딱지.

00:35:08.118 --> 00:35:10.893

비하의 의미를 가지고
있는 딱지예요, 여러분.

00:35:10.993 --> 00:35:14.874

그래서 심술딱지, 화딱지 이런
표현 쓸 때 비하의 의미.

00:35:14.974 --> 00:35:16.413

코딱지는 어떨까요?

00:35:16.513 --> 00:35:19.481

더럽지만, 코딱지.

00:35:19.581 --> 00:35:24.028

파생어일까요, 코딱지?

00:35:24.128 --> 00:35:29.060

상처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자
딱지가 앉았다고 할 때

00:35:29.160 --> 00:35:30.887

그 딱지는 명사죠, 명사.

00:35:30.987 --> 00:35:34.438

코딱지는 코를 비하하는 게
아니라 코 안에 있는 딱지,

00:35:34.538 --> 00:35:36.498

이물질 붙은 거, 말라 붙은 거.

00:35:36.598 --> 00:35:38.873

이거는 합성어라고 봐야죠, 그러면.
그렇죠?

00:35:38.973 --> 00:35:41.186

이때의 딱지와 이때의 딱지는
같지 않습니다, 그렇지요?

00:35:41.286 --> 00:35:44.274

그다음에 아주 대표적인
명사와 접미사.

00:35:44.374 --> 00:35:47.082

그리고 우리는 이미 용언의
활용을 공부하면서

00:35:47.182 --> 00:35:48.708

이거 되게 주의했어야 된다. 왜?

00:35:48.808 --> 00:35:52.748

ㅁ이나 음이라고 하는 것이
명사와 접미사도 있지만,

00:35:52.848 --> 00:35:56.446

명사형 전성어미도 있었기 때문에
판단을 잘했어야 돼요.

00:35:56.546 --> 00:35:58.679

사전에 등재가 되는 놈들이었습니다.

00:35:58.779 --> 00:36:01.923

그러나 잠이나 기쁨
여기에서는 여기 ㅁ.

00:36:02.023 --> 00:36:04.512

기쁨의 ㅁ, 자의 ㅁ.

00:36:04.612 --> 00:36:06.689

믿음, 죽음 이런 놈들이죠.

00:36:06.789 --> 00:36:09.256

이런 놈들은 사전에 등재가
되어 있는 상태예요.

00:36:09.356 --> 00:36:14.523

물론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라
할지라도 무조건 문장 내에서

00:36:14.623 --> 00:36:20.444

애는 명사라고 볼 수는
없다는 거 기억하시죠.

00:36:30.890 --> 00:36:37.539

그래서 그가 죽음으로
모두 슬퍼했다.

00:36:37.639 --> 00:36:40.231

이때의 죽음은 명사다, 아니다?

00:36:40.331 --> 00:36:41.243

아니다.

00:36:41.343 --> 00:36:46.299

만약에 그의 죽음으로라고
한다면 가능하다.

00:36:46.399 --> 00:36:48.049

이렇게 되면 가능하다, 그렇지?

00:36:48.149 --> 00:36:51.973
그의라고 하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고
있다면 명사로 봐야 되겠지만,

00:36:52.073 --> 00:36:57.163
그가 죽음으로 했을 때는
그가 죽다라고 하는 명사절.

00:36:57.263 --> 00:36:59.113
우리가 이제 뒤에 배워야
되는 부분이에요.

00:36:59.213 --> 00:37:01.443
그래서 이때는 수식을
뭘 넣어줄 수 있다?

00:37:01.543 --> 00:37:03.281
부사의 수식을 넣어줄 수 있어요.

00:37:03.381 --> 00:37:07.021
그가 일찍, 빨리 죽음으로
모두 슬퍼했다, 이렇게.

00:37:07.121 --> 00:37:09.980
그래서 빨리 수식을 받을 수
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

00:37:10.080 --> 00:37:13.016
용언의 활용형이구나라고 하는
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.

00:37:13.116 --> 00:37:16.289
따라서 만약에 빨리 수식을 받을
수 있는 이와 같은 구성이라면

00:37:16.389 --> 00:37:21.932
이때의 음이 명사형 전성어미지만,
그의 죽음으로라고 하는 식으로

00:37:22.032 --> 00:37:25.452
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면
명사인 거예요, 아예 명사.

00:37:25.552 --> 00:37:29.732
따라서 이때의 음은 바로 명사와
접미사 음이 되는 거죠.

00:37:29.832 --> 00:37:32.592
그래서 이 형태가 나왔다고
해서 또 무조건 명사,

00:37:32.692 --> 00:37:34.187
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.

00:37:34.287 --> 00:37:35.637
구조를 봐야 돼요, 그렇지요?

00:37:35.737 --> 00:37:37.470
다음 발입니다, 발.

00:37:37.570 --> 00:37:40.094
기세나 효과 이런 걸 나타내는 발.

00:37:40.194 --> 00:37:43.187
말발, 약발, 화장발, 그렇죠?

00:37:43.287 --> 00:37:45.388
그러면 말발 하면 말의 기세.

00:37:45.488 --> 00:37:47.067
약발, 약 효과.

00:37:47.167 --> 00:37:49.288
화장발, 기세 아니겠죠?

00:37:49.388 --> 00:37:52.065
화장해서 막 기세가 세거나
이런 건 아니잖아요.

00:37:52.165 --> 00:37:53.698
화장의 효과 이런 거
볼 수 있겠죠.

00:37:53.798 --> 00:37:55.641
그래서 화장발 이렇게
볼 수 있습니다.

00:37:55.741 --> 00:37:58.442
보, 특성을 가진 사람 얘기할
때 보 같은 거 쓰죠.

00:37:58.542 --> 00:38:02.280
그래서 피보, 먹보, 똥똥보,
또 잠보 이런 표현 쓰죠.

00:38:02.380 --> 00:38:03.508
다음 새.

00:38:03.608 --> 00:38:04.636
모양이나 상태.

00:38:04.736 --> 00:38:06.926
그래서 모양새, 생김새, 짜임새.

00:38:07.026 --> 00:38:09.322
형태소를 구분할 수
있잖아요, 모양과 새로.

00:38:09.422 --> 00:38:12.427
이때의 새는 접미사가 되겠습니다.

00:38:12.527 --> 00:38:14.900
씨.

00:38:15.000 --> 00:38:19.428
말씨, 마음씨 할 때 이런 거
씨도 접미사가 되는 거고요.

00:38:19.528 --> 00:38:20.951
다음에 이.

00:38:21.051 --> 00:38:22.809

대표적인 명사와 접미사죠.

00:38:22.909 --> 00:38:25.048

길이, 떡이, 목걸이, 그렇죠?

00:38:25.148 --> 00:38:28.159

그러니까 길이 같은 경우에도
길이를 잴다라고 할 때

00:38:28.259 --> 00:38:31.216

그때의 길이, 그다음에 떡이를
주었다 할 때 그때의 떡이.

00:38:31.316 --> 00:38:33.250

그다음에 목걸이가 되는 거죠.

00:38:33.350 --> 00:38:36.488

이런 거 전부 다 명사를 만들 수
있는 힘을 가진 접미사가 됩니다.

00:38:36.588 --> 00:38:37.937

장이, 쟁이.

00:38:38.037 --> 00:38:39.289

둘이 구분 어떻게 합니까?

00:38:39.389 --> 00:38:43.306

장은 기술자, 그다음 쟁이는 그외의
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.

00:38:43.406 --> 00:38:46.539

그래서 장이는 기술자여서
미장이, 옹기장이.

00:38:46.639 --> 00:38:50.980

그래서 건축을 할 때 시멘트 바르고
회칠 해주고 하시는 분들을

00:38:51.080 --> 00:38:52.814

우리는 미장이라고 표현합니다.

00:38:52.914 --> 00:38:55.319

옹기 만드시는 전문직,
바로 옹기장이라고 하죠.

00:38:55.419 --> 00:38:57.009

쟁이는 이제 속성 가진 사람.

00:38:57.109 --> 00:39:00.076

겹쟁이, 멧쟁이인데 사람만
쓰는 건 아니고, 그렇죠?

00:39:00.176 --> 00:39:04.186

그래서 겹쟁이, 멧쟁이, 소금쟁이
이런 것들도 역시 나눌 수 있습니다.

00:39:04.286 --> 00:39:07.105

조금 뜻이 더 많긴 한데,
핵심적인 것만 달아 놓은 거라서.

00:39:07.205 --> 00:39:09.623

그래서 이런 거 또
접미사로 되어 있죠.

00:39:09.723 --> 00:39:12.973

질, 이것도 워낙
파생성이 강하긴 한데.

00:39:13.073 --> 00:39:17.581

가위질, 결눈질, 도둑질 등등
~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질이죠.

00:39:17.681 --> 00:39:18.855

접미사입니다.

00:39:18.955 --> 00:39:21.707

짜, 그릇짜, 뿌리짜, 통짜.

00:39:21.807 --> 00:39:24.006

통짜는 사전에 등재되어
있을 거예요.

00:39:24.106 --> 00:39:26.764

그런데 그릇짜, 뿌리짜 이런 건
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.

00:39:26.864 --> 00:39:28.869

역시나 짜도 파생성이 워낙 강하죠.

00:39:28.969 --> 00:39:32.426

보면 그릇짜 먹고, 뿌리짜 먹었다.

00:39:32.526 --> 00:39:34.389

통채로 아니예요, 여러분.

00:39:34.489 --> 00:39:35.546

통채가 아닙니다.

00:39:35.646 --> 00:39:37.167

통짜로,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.

00:39:37.267 --> 00:39:38.714

통채는 없는 단어예요, 알겠죠?

00:39:38.814 --> 00:39:41.051

그래서 통짜로 먹었다,
이런 식으로.

00:39:41.151 --> 00:39:42.427

아시겠죠?

00:39:42.527 --> 00:39:44.906

그래서 이때의 짜라고 하는 것도
역시 명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

00:39:45.006 --> 00:39:46.856

대표적인 접미사에 해당합니다.

00:39:46.956 --> 00:39:49.969

이번에는 부사화 접미사 중에
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

00:39:50.069 --> 00:39:51.900
더 있지만 네 개를 보려고 합니다.

00:39:52.000 --> 00:39:53.814
먼저 켓 있어요, 켓.

00:39:53.914 --> 00:39:58.901
마음켓, 힘켓, 이제켓, 지금켓
이런 단어 만들 수 있죠.

00:39:59.001 --> 00:40:02.560
그런데 여러분, 보면
이제켓이라는 표현 쓰고,

00:40:02.660 --> 00:40:05.444
지금켓이라는 표현
쓸 수 있는데.

00:40:05.544 --> 00:40:11.226
여지켓이라는 말 혹시
들어 보셨어요, 여지켓?

00:40:15.046 --> 00:40:19.058
이제켓, 지금켓,
여태켓 이런 것들.

00:40:19.158 --> 00:40:21.493
여지켓은 쓸 수 없는 단어예요.

00:40:21.593 --> 00:40:23.248
만약에 썼다는 건
잘못 쓰는 겁니다.

00:40:23.348 --> 00:40:25.246
여지켓 뭐 했니, 이렇게
쓰면 안 됩니다.

00:40:25.346 --> 00:40:27.120
왜 안 되는지를 보면, 잘 보세요.

00:40:27.220 --> 00:40:29.864
켓이라고 하는 건
접미사에 불과해요.

00:40:29.964 --> 00:40:32.993
그럼 접미사를 지워냈을
때도 남아 있는 놈들은

00:40:33.093 --> 00:40:35.146
분명 단어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.

00:40:35.246 --> 00:40:39.056
그래서 이제나 여태라고 하는
것은 단어예요, 그렇지요?

00:40:39.156 --> 00:40:42.699
이제, 여태라고 하는
부사들이 존재하는 거고.

00:40:42.799 --> 00:40:44.570

그다음에 여지라고, 이게 뭐야?

00:40:44.670 --> 00:40:45.500

여지가 뭔데?

00:40:45.600 --> 00:40:47.725

여지껏 할 때의 그 여지가 뭔데요?

00:40:47.825 --> 00:40:50.485

이런 단어가 없는 거죠, 그렇지요?

00:40:50.585 --> 00:40:55.387

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할 때 그 단어의 뜻이 아니잖아요,

00:40:55.487 --> 00:40:56.450

이 여지가.

00:40:56.550 --> 00:40:58.939

그렇다면 여지껏이라는 게
지금껏 뭐 했어라는

00:40:59.039 --> 00:41:01.451

그런 의미로 쓰인 거라면
그 지금이라는 뜻으로

00:41:01.551 --> 00:41:02.996

여지라는 단어가 존재하느냐?

00:41:03.096 --> 00:41:04.145

존재하지 않거든요.

00:41:04.245 --> 00:41:07.227

그러니까 이 껏이라고 하는 걸
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.

00:41:07.327 --> 00:41:08.524

왜?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.

00:41:08.624 --> 00:41:11.702

그래서 이런 여지껏이라는 단어가
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.

00:41:11.802 --> 00:41:14.832

이제껏, 여태껏, 지금껏 이런
것들은 가능해도 말이죠.

00:41:14.932 --> 00:41:18.810

그다음에 내를 가보도록
할게요, 내.

00:41:18.910 --> 00:41:21.134

봄내, 저녁내, 끝내.

00:41:21.234 --> 00:41:24.739

이런 것들도 확실히 우리 지배적
접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.

00:41:24.839 --> 00:41:27.166

봄이나 저녁이나 끝
같은 거 명사들이에요.

00:41:27.266 --> 00:41:32.106
그런데 이런 명사들에 내가 붙어서
봄내, 여름내, 가을내, 겨울내,

00:41:32.206 --> 00:41:38.422
또 저녁내, 아침내, 끝내 이런
식으로 말을 써서 부사의 기능.

00:41:38.522 --> 00:41:41.552
저녁내 밥 먹었다, 저녁내
쉬었다 이런 식으로

00:41:41.652 --> 00:41:44.356
쉬었다를 꾸며줄 수 있게끔
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하는

00:41:44.456 --> 00:41:46.426
부사적 기능을 가지고
있는 접미사입니다.

00:41:46.526 --> 00:41:50.038
그러나 사실 부사화 접미사로
만드시 알아야 되는 건

00:41:50.138 --> 00:41:52.463
이 두 가지예요, 이랑 히.

00:41:52.563 --> 00:41:56.980
이랑 히가 붙어서 부사 역할을
하면 그건 부사입니다.

00:41:57.080 --> 00:42:01.838
명사화 접미사의 경우에는
ㅁ이나 음의 경우가

00:42:01.938 --> 00:42:06.033
명사형 전성어미랑
헛갈리는 것 있었어요.

00:42:06.133 --> 00:42:08.278
그래서 그거 문제로
자주 냈던 거였고요.

00:42:08.378 --> 00:42:11.238
그런데 이나 히, 고민
전혀 안 하셔도 되죠.

00:42:11.338 --> 00:42:15.188
왜? 이나 히는 부사형 전성어미라는
걸로는 존재하지 않아요.

00:42:15.288 --> 00:42:16.596
무조건 접미사.

00:42:16.696 --> 00:42:18.441
단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.

00:42:18.541 --> 00:42:21.196
그래서 이런 것들.

00:42:21.296 --> 00:42:25.097
이를 붙일 거냐 히를 붙일 거냐에
대한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.

00:42:25.197 --> 00:42:27.918
그건 우리가 나중에 어문규정
할 때 보도록 할 테니까.

00:42:28.018 --> 00:42:31.817
우선 지금은 많다의
이, 일일 첩어의 이,

00:42:31.917 --> 00:42:34.769
깨끗하다의 어근인 어근인 깨끗+이.

00:42:34.869 --> 00:42:37.705
다음 조용하다의 조용 어근에다 히.

00:42:37.805 --> 00:42:39.237
나란하다, 나란히.

00:42:39.337 --> 00:42:42.797
무사하다, 무사만 띄어내서
히 이렇게 붙이는 거죠.

00:42:42.897 --> 00:42:44.966
그래서 이렇게 이나
히가 붙었을 때는

00:42:45.066 --> 00:42:47.221
전부 다 품사가 부사가
되어 버립니다.

00:42:47.321 --> 00:42:49.871
그리고 사전에 다
등재돼요, 애네는.

00:42:49.971 --> 00:42:51.965
부사화 접미사를 확인해 봤고요.

00:42:52.065 --> 00:42:54.198
그다음 동사화 접미사를
보도록 할게요.

00:42:54.298 --> 00:42:56.627
동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
힘을 가진 놈들이죠.

00:42:56.727 --> 00:42:58.163
거리다, 대다.

00:42:58.263 --> 00:42:59.649
이건 둘이 똑같은 뜻이에요.

00:42:59.749 --> 00:43:02.000
거리다 쓸 수 있으면 대다 쓰시면
되고, 대다 쓸 수 있으면

00:43:02.100 --> 00:43:03.314
거리다 쓸 수 있으면 됩니다.

00:43:03.414 --> 00:43:06.717
딱 봤더니 반짝거리다,
방실거리다, 출렁거리다, 그렇지?

00:43:06.817 --> 00:43:09.088
이랬을 때 반짝, 방실, 출렁.

00:43:09.188 --> 00:43:13.222
주로 의성어, 의태어,
의성부사, 의태부사.

00:43:13.322 --> 00:43:14.605
즉, 부사들이네.

00:43:14.705 --> 00:43:18.659
이 부사어 어근에다 붙이는
그런 방식들이 좀 많습니다.

00:43:18.759 --> 00:43:20.742
그래서 동사를 만들어주고 있죠.

00:43:20.842 --> 00:43:26.175
반짝거린다, 방실거린다, 출렁거린다
하고 ㄴ다를 붙일 수 있으면

00:43:26.275 --> 00:43:27.836
동사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

00:43:27.936 --> 00:43:29.132
동사가 되는 놈들.

00:43:29.232 --> 00:43:35.047
뜨리다, 트리다 하면 사실
엄밀하게 얘기하면 거리나 대까지만

00:43:35.147 --> 00:43:37.755
접미사라고 봐야 되고,
다는 어미죠.

00:43:37.855 --> 00:43:41.289
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
지금 만들어드리는 겁니다.

00:43:41.389 --> 00:43:43.619
역시나 뜨리나 트리
이렇게 보셔도 되고요.

00:43:43.719 --> 00:43:45.571
뜨리다, 트리다 똑같은 뜻이에요.

00:43:45.671 --> 00:43:47.154
강조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.

00:43:47.254 --> 00:43:48.982
그래서 어떤 단어
만들 수 있습니까?

00:43:49.082 --> 00:43:53.723
깨다의 깨뜨리다, 밀다의 밀뜨리다,
흘다의 흘뜨리다, 흘트리타,

00:43:53.823 --> 00:43:55.170
밀트리다.

00:43:55.270 --> 00:43:56.340
상관없어요, 다.

00:43:56.440 --> 00:43:57.876
뜨리, 트리 섞어 쓰시면 되겠고요.

00:43:57.976 --> 00:43:59.734
이런 것들이 역시 만들어졌습니다.

00:43:59.834 --> 00:44:01.967
다음, 이, 히, 리,
기, 우, 구, 추.

00:44:02.067 --> 00:44:04.958
우리 이제 문법 요소 공부하면
사동, 피동 나눌 때

00:44:05.058 --> 00:44:06.464
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.

00:44:06.564 --> 00:44:08.132
그래서 이, 히, 리,
기, 우, 구, 추.

00:44:08.232 --> 00:44:12.176
이, 히, 리, 기의 경우에는
중간에 끼었을 때 사동 또는 피동

00:44:12.276 --> 00:44:14.333
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.

00:44:14.433 --> 00:44:17.484
우, 구, 추는 무조건
사동, 이런 건데.

00:44:17.584 --> 00:44:18.854
볼까요?

00:44:18.954 --> 00:44:23.038
보이다라고 하는 단어를
사전에서 찾을 수 있죠.

00:44:23.138 --> 00:44:25.841
그러나 이 보이다가
단어가 형성됐을 때

00:44:25.941 --> 00:44:27.574
어디에서 출발했음을
알 수 있습니까?

00:44:27.674 --> 00:44:29.885
보다에서 출발했다는 건
누구나 다 알 거예요.

00:44:29.985 --> 00:44:31.676
그래서 보다, 보이다.

00:44:31.776 --> 00:44:35.267

이때 이가 들어갔을 때 보게
만든 것일 수도 있고요.

00:44:35.367 --> 00:44:37.381
아니면 보게 된 것일 수도 있어요.

00:44:37.481 --> 00:44:39.786
그래서 이진 사동, 피동의
느낌을 다 주고요.

00:44:39.886 --> 00:44:42.031
다음에 읽히다, 사동이죠.

00:44:42.131 --> 00:44:44.088
무엇을 읽게 만드는 겁니다.

00:44:44.188 --> 00:44:46.248
그래서 읽다에다 읽히다 붙었죠.

00:44:46.348 --> 00:44:49.441
팔리다, 팔다, 팔리다.

00:44:49.541 --> 00:44:53.353
팔게 된 거예요, 팔려진 겁니다.

00:44:53.453 --> 00:44:54.957
피동적인 느낌이 나와요.

00:44:55.057 --> 00:44:56.291
그다음에 쫓다, 쫓기다.

00:44:56.391 --> 00:44:58.027
누구에게 당하는 거죠.

00:44:58.127 --> 00:44:59.355
역시나 피동적인 느낌이죠.

00:44:59.455 --> 00:45:00.777
그다음에 깨우다.

00:45:00.877 --> 00:45:03.005
내가 깨면 스스로 하는 겁니다.

00:45:03.105 --> 00:45:07.562
그런데 그것을 주동인데
그것을 이렇게 시킨 거죠.

00:45:07.662 --> 00:45:08.925
그러니까 사동, 깨우다.

00:45:09.025 --> 00:45:10.147
다음 늦추다.

00:45:10.247 --> 00:45:11.970
늦다, 늦추다, 늦게 만든 겁니다.

00:45:12.070 --> 00:45:15.158
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붙었을
때 사전에 다 등재돼요.

00:45:15.258 --> 00:45:16.194

다시 한번.

00:45:16.294 --> 00:45:18.631

이, 히, 리, 기, 우, 구,
추와 같은 이런 접미사들은

00:45:18.731 --> 00:45:20.757

붙는 것들은 사전에
무조건 등재가 되는데.

00:45:20.857 --> 00:45:22.422

한번 여러분, 찾아 보세요.

00:45:22.522 --> 00:45:24.708

예를 들어 보이다를 딱 찾으면
뭐라고 나와 있느냐.

00:45:24.808 --> 00:45:28.896

보다의 사동사, 보다의
피동사라고만 딱 사전에 나와요.

00:45:28.996 --> 00:45:33.883

그 얘기는 기본적인 의미는
어근에 있으니까 어근과 관련된

00:45:33.983 --> 00:45:35.449

보다를 찾아보세요.

00:45:35.549 --> 00:45:37.974

그리고 그 찾아보시고 그
보다의 의미를 알았으면

00:45:38.074 --> 00:45:41.612

이놈을 사동적으로, 이놈을 피동적으로
만들었다는 것입니다에 대한

00:45:41.712 --> 00:45:43.031

정보만 더해줄 뿐이죠.

00:45:43.131 --> 00:45:44.637

등재는 일단 되어 있다는 점.

00:45:44.737 --> 00:45:47.448

피동, 사동 접미사라고 합니다.

00:45:47.548 --> 00:45:50.404

역시 애네는 동사성을 만들어주겠죠.

00:45:50.504 --> 00:45:54.827

하다나 되다 같은 경우 볼게요.

00:45:54.927 --> 00:45:57.094

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.

00:45:57.194 --> 00:46:00.055

공부를 하다와 공부하다의 구조가
완전 다르다고요, 그렇죠?

00:46:00.155 --> 00:46:04.022

공부를 하다는 공부 명사, 를
조사 그리고 하다가 동사로

00:46:04.122 --> 00:46:07.761
처리되는 거지만, 공부하다 이러면
하나의 동사가 되는 것으로,

00:46:07.861 --> 00:46:09.735
왜 하나의 동사가 된 걸로 가느냐.

00:46:09.835 --> 00:46:12.040
이게 접미사이기 때문이죠,
하다 접미사.

00:46:12.140 --> 00:46:13.286
되다 접미사.

00:46:13.386 --> 00:46:15.506
하다가 되면 능동이고,
되다가 되면 피동이죠.

00:46:15.606 --> 00:46:20.575
그래서 생각하다, 사랑하다,
절하다, 가결하다, 가결되다,

00:46:20.675 --> 00:46:23.002
형성하다, 형성되다
이런 것들은, 그렇죠?

00:46:23.102 --> 00:46:26.527
하다가 되는 놈들이, 하다가
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진

00:46:26.627 --> 00:46:29.224
그 파생어들이 1만
5000가지가 넘어가요.

00:46:29.324 --> 00:46:33.428
그런데 그중에서 꽤 많은 수가 되다랑
같이 섞어 쓸 수도 있어요.

00:46:33.528 --> 00:46:37.173
그래서 이런 것처럼 가결하다,
형성하다 이런 것들은

00:46:37.273 --> 00:46:40.003
가결되다, 형성되다와
같이 이렇게 한자어들이랑

00:46:40.103 --> 00:46:42.419
주로 많이 붙는 경향을 하다,
되다가 갖고 있습니다.

00:46:42.519 --> 00:46:46.342
단, 되다가 됐을 때는 피동적인
뉘앙스가 더 들어가는 거죠.

00:46:46.442 --> 00:46:49.934
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
파생어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.

00:46:50.034 --> 00:46:51.931
다음 당하다, 시키다.

00:46:52.031 --> 00:46:53.364

피동, 사동의 느낌이죠.

00:46:53.464 --> 00:46:57.334

그래서 거절하다, 거절당하다라고
했을 때 당하,

00:46:57.434 --> 00:47:01.035

이게 하나의 접미사를
형성해주는 겁니다.

00:47:01.135 --> 00:47:05.599

그래서 거절당하다, 형태소 나누면 거절,
당하, 다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.

00:47:05.699 --> 00:47:08.751

당하다, 무시하다, 무시당하다,
교육하다, 교육시키다,

00:47:08.851 --> 00:47:10.383

등록하다, 등록시키다.

00:47:10.483 --> 00:47:13.116

즉, 기본적으로는 하다라는
놈들이 되는 놈들에서

00:47:13.216 --> 00:47:15.899

그거를 그다음에 만약에
이제 피동적으로 만들겠다,

00:47:15.999 --> 00:47:18.965

사동적으로 만들겠다 하면
넣어주는 그러한 접미사들이죠.

00:47:19.065 --> 00:47:20.741

하다 접미사 빼고
다른 거 넣어주고.

00:47:20.841 --> 00:47:21.905

다음 치.

00:47:22.005 --> 00:47:23.522

강조 나타내주는 접미사입니다.

00:47:23.622 --> 00:47:27.210

그래서 넘다, 넘치다, 밀다,
밀치다, 부딪다, 부딪치다.

00:47:27.310 --> 00:47:29.108

이런 것들 만들어줄 수 있겠죠.

00:47:29.208 --> 00:47:31.665

그래서 강조성 나타내는 접미사.

00:47:31.765 --> 00:47:34.583

이번에는 형용사를 만들어줄
수 있는 접미사예요.

00:47:34.683 --> 00:47:36.202

대표적인 다랴다.

00:47:36.302 --> 00:47:39.535

그 정도가 꽤 뚜렷하다라고
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태주죠.

00:47:39.635 --> 00:47:42.257

굵다랗다, 높다랗다, 커다랗다.

00:47:42.357 --> 00:47:45.539

그러면 굵다, 높다 또는
크다의 구조에다, 어근에다

00:47:45.639 --> 00:47:47.474

뒤에 있는 접미사들을 붙이고요.

00:47:47.574 --> 00:47:48.899

다음 답다입니다.

00:47:48.999 --> 00:47:51.382

꽃답다, 사람답다,
정답다, 선생님답다.

00:47:51.482 --> 00:47:53.531

그러니까 그러한 성질을
가지고 있음인데.

00:47:53.631 --> 00:47:55.891

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생성이
워낙 강하기 때문에

00:47:55.991 --> 00:47:59.090

이런 걸 사전에 넣어줄
수는 없어요, 애는.

00:47:59.190 --> 00:48:00.528

그런데 애는 들어가 있어요.

00:48:00.628 --> 00:48:04.314

정답다는 들어가 있고, 꽃답다도
심지어 있습니다, 사전에.

00:48:04.414 --> 00:48:06.329

왜 있는지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.

00:48:06.429 --> 00:48:11.572

꽃답다가 왜 있을지를 찾아보면
활용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.

00:48:11.672 --> 00:48:13.840

우리 꽃다운 나이,
이런 표현 많이 쓰죠?

00:48:13.940 --> 00:48:17.260

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워낙 많이
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는

00:48:17.360 --> 00:48:18.458

필요하다고 본 거예요.

00:48:18.558 --> 00:48:22.213

그래서 꽃답다라고 하는 것이

진짜 꽃처럼 생겼다는 의미는

00:48:22.313 --> 00:48:23.634
아니라는 거죠.

00:48:23.734 --> 00:48:26.142
그래서 새 정보를 줌
주는 편이고요.

00:48:26.242 --> 00:48:27.240
그러나 이런 거.

00:48:27.340 --> 00:48:29.628
너 진짜 학생답다, 쓰면 됩니다.

00:48:29.728 --> 00:48:31.775
없다고, 사전에 없다고 안
쓰는 거 아니에요, 알겠죠?

00:48:31.875 --> 00:48:33.773
접미사가 파생성이 강한
거예요, 답다도.

00:48:33.873 --> 00:48:35.825
롭다. 어떤 거 있어요?

00:48:35.925 --> 00:48:39.355
명예롭다, 신비롭다, 자유롭다,
이롭다, 해롭다, 슬기롭다.

00:48:39.455 --> 00:48:41.160
많이 만들죠, 그렇죠?

00:48:41.260 --> 00:48:43.162
이런 것들도 역시
형용사를 만듭니다.

00:48:43.262 --> 00:48:46.078
애네는 전부 다 ㄴ다를
붙여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.

00:48:46.178 --> 00:48:47.388
형성이 안 됩니다.

00:48:47.488 --> 00:48:51.915
굵다란다, 꽃다운다,
명예로운다, 안 되지 않습니까?

00:48:52.015 --> 00:48:54.950
스럽다, ~스럽다.

00:48:55.050 --> 00:49:01.230
복스럽다, 걱정스럽다, 자랑스럽다,
사랑스럽다 이런 것들.

00:49:01.330 --> 00:49:03.281
그러한 성질이 있음을
나타내는 접미사.

00:49:03.381 --> 00:49:06.480
쩍다, 수상쩍다,

의심쩍다, 겸연쩍다.

00:49:06.580 --> 00:49:08.826

그러니까 이런 접미사들 역시
계속 어근 뒤에 붙어 있죠.

00:49:08.926 --> 00:49:10.838

하다, 하다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.

00:49:10.938 --> 00:49:13.452

어디에서 봤었죠? 동사와 접미사.

00:49:13.552 --> 00:49:18.400

하다는 동사와 접미사로 쓰이지만
형용사와 접미사로도 쓰입니다.

00:49:18.500 --> 00:49:21.087

그래서 하다가 붙었을 때는
여러분이 그 단어에다

00:49:21.187 --> 00:49:22.938

ㄴ다를 붙여 보셔야 돼요.

00:49:23.038 --> 00:49:26.276

그래서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,
생각하다 동사죠, 생각한다.

00:49:26.376 --> 00:49:29.871

공부하다 동사죠, 공부한다
가능했으니까요, 그렇죠?

00:49:29.971 --> 00:49:33.020

그러나 애네는 ㄴ다를 붙였을
때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.

00:49:33.120 --> 00:49:36.437

건강한다, 순수한다,
진실한다, 행복한다.

00:49:36.537 --> 00:49:37.729

말이 안 되죠.

00:49:37.829 --> 00:49:39.826

그래서 이런 놈들은 다
형용사로 처리가 되고,

00:49:39.926 --> 00:49:43.225

이런 형용사로 처리된 놈들은
명령이나 청유도 불가하죠.

00:49:43.325 --> 00:49:47.035

따라서 건강하세요라고 하는
표현이 왜 어법상 잘못됐는지를

00:49:47.135 --> 00:49:48.194

알 수 있는 거죠.

00:49:48.294 --> 00:49:50.114

행복하세요, 행복하자 우리.

00:49:50.214 --> 00:49:51.067

안 돼요, 그렇죠?

00:49:51.167 --> 00:49:52.573
명령이나 청유가 안 됩니다.

00:49:52.673 --> 00:49:55.132
그래서 행복하게 지내세요,
행복하게 사세요.

00:49:55.232 --> 00:49:58.058
이런 것처럼 보조용언을 붙여서
뭔가 단어를 만들 수,

00:49:58.158 --> 00:50:00.631
더 확장해서 명령이나
청유를 할 수 있는 거지

00:50:00.731 --> 00:50:06.373
이 자체로는 ㄴ다도 불가하고
명령, 청유도 불가하고.

00:50:06.473 --> 00:50:09.893
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생어들은
결국 핵심은 뭐냐면

00:50:09.993 --> 00:50:12.796
파생어는 접사에 대한 지식을
늘려 나가는 거예요.

00:50:12.896 --> 00:50:16.589
선생님이 지금 화면으로 제시한 것은
사실 일부의 예에 불과하고요.

00:50:16.689 --> 00:50:19.961
여러분이 보는 교안에는 더
많은 예가 있습니다.

00:50:20.061 --> 00:50:23.843
그래서 그 많은 예를 좀 눈에
익히는 것이 문제를 풀 때

00:50:23.943 --> 00:50:25.954
실수를 안 할 수 있는
방법이긴 합니다.

00:50:26.054 --> 00:50:27.682
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.

00:50:27.782 --> 00:50:30.197
한자어까지 같이 껴 있기
때문에 좀 보시고요.

00:50:30.297 --> 00:50:32.218
그다음에 이제 합성어
쪽으로 넘어가는데.

00:50:32.318 --> 00:50:36.054
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는 구조로
만들어진 걸 합성어라고 했죠.

00:50:36.154 --> 00:50:41.072

그런데 이제 합성어를 잡을
때 그 합성된 놈의 단어가

00:50:41.172 --> 00:50:44.301
품사가 뭐냐에 따라 결정할 수
있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.

00:50:44.401 --> 00:50:47.236
그다음에 의미가 뭐냐에 따라
나눠주는 기준이 있고,

00:50:47.336 --> 00:50:50.960
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
통사적, 비통사적 구조라고 해서

00:50:51.060 --> 00:50:56.044
이제 그 안에 조합되는 그 구조를
따라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.

00:50:56.144 --> 00:50:59.649
일단 우선 첫 번째, 합성된
결과물의 품사가 뭐냐예요.

00:50:59.749 --> 00:51:03.425
지금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
단어들은 다 합성어는 맞습니다.

00:51:03.525 --> 00:51:06.295
그럼 한번 끊어 볼게요.

00:51:06.395 --> 00:51:10.633
한둘, 그렇죠?

00:51:10.733 --> 00:51:13.751
불잡다, 곧잘.

00:51:13.851 --> 00:51:16.411
물론 다도 끊을 수 있죠,
다도 끊을 수 있지만,

00:51:16.511 --> 00:51:18.158
우리는 어근만 챙길 겁니다.

00:51:18.258 --> 00:51:24.543
그래서 높푸르다, 여러분, 아이참,
지난해, 덮밥, 첫사랑, 곧은살,

00:51:24.643 --> 00:51:27.365
새해, 반짝반짝, 굶.

00:51:27.465 --> 00:51:29.321
선생님이 너무 다 해버리네.

00:51:29.421 --> 00:51:30.959
여러분이 멈춰 놓고 해줘야 되는데.

00:51:31.059 --> 00:51:33.509
두세, 이것, 온종일,
앞서다, 이리저리.

00:51:33.609 --> 00:51:36.924

멈춰놓고 한번 넣어 보세요.

00:51:37.024 --> 00:51:43.638

애네가 품사가 어디인지를
넣어보시면 됩니다.

00:51:43.738 --> 00:51:47.470

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봅시다.

00:51:47.570 --> 00:51:49.861

지금 위에 나와 있는
합성명사, 동사,

00:51:49.961 --> 00:51:52.152

합성형용사, 합성부사가
많은 편이고요.

00:51:52.252 --> 00:51:53.759

아래가 좀 적은 편에 속해요.

00:51:53.859 --> 00:51:55.942

그래서 이제 일단
위에 걸 잡았는데.

00:51:56.042 --> 00:52:00.082

먼저 한둘 같은 경우 뭘까요?

00:52:00.182 --> 00:52:05.161

사람들이 한둘 모였다, 아니면
한둘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

00:52:05.261 --> 00:52:08.714

이 한둘 같은 경우에는
두 가지 모두 다 쓰입니다.

00:52:08.814 --> 00:52:12.529

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리고
합성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,

00:52:12.629 --> 00:52:14.321

합성 뭐로도 쓰일까요?

00:52:14.421 --> 00:52:16.582

그렇죠, 수사의 개념으로도
쓰일 수 있습니다.

00:52:16.682 --> 00:52:20.369

그래서 애는 합성명사,
합성수사가 되는데.

00:52:20.469 --> 00:52:22.542

지금 한둘의 구성 한번 보시겠어요?

00:52:22.642 --> 00:52:25.698

보시면 한은 품사가 뭐예요?

00:52:25.798 --> 00:52:29.171

한 사람이라고 할 때
관형사예요, 관형사.

00:52:29.271 --> 00:52:31.770

둘은 뭐죠? 수사예요, 수사.

00:52:31.870 --> 00:52:34.860

관형사랑 수사의 어근,
어근 조합이 됐잖아요.

00:52:34.960 --> 00:52:40.831

그런데 조합된 어근의 품사가
뭐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.

00:52:40.931 --> 00:52:43.965

어쨌든 어근과 어근이
더해졌으면 합성어고,

00:52:44.065 --> 00:52:49.101

합성된 결과물이 뭐로 쓰이느냐가
애네를 결정짓는 거예요.

00:52:49.201 --> 00:52:51.804

붙잡다 뭐랑 뭐가 더해졌죠?

00:52:51.904 --> 00:52:56.153

붙다, 잡다라고 하는 용언,
동사와 동사가 결합된 거죠.

00:52:56.253 --> 00:52:59.007

결국 붙잡다 품사가 뭐니까?

00:52:59.107 --> 00:53:01.038

붙잡는다, 가능하죠.

00:53:01.138 --> 00:53:03.468

그러니까 애는 합성동사가 되겠죠.

00:53:03.568 --> 00:53:05.846

붙잡다 합성동사입니다.

00:53:05.946 --> 00:53:08.169

곧잘, 곧하고 잘이에요.

00:53:08.269 --> 00:53:10.262

곧 도착해, 잘 왔어.

00:53:10.362 --> 00:53:13.013

곧이나 잘은 전부 다
부사, 부사죠.

00:53:13.113 --> 00:53:15.109

그런데 붙어서 곧잘 뭐하다.

00:53:15.209 --> 00:53:17.248

역시 부사로 쓰이는 거죠.

00:53:17.348 --> 00:53:20.128

합성부사.

00:53:20.228 --> 00:53:28.034

높푸르다, 높다 형용사, 푸르다
형용사, 높푸르다 형용사.

00:53:28.134 --> 00:53:30.451

여러분, 여리가 뭐예요, 여리?

00:53:30.551 --> 00:53:32.298
여리 띄고 사람입니다.

00:53:32.398 --> 00:53:34.421
그럼 여리는 관형사예요.

00:53:34.521 --> 00:53:35.798
다음 분은요?

00:53:35.898 --> 00:53:39.735
이분, 그분, 저분께서 이렇게
얘기할 때 그때의 분은 의존명사.

00:53:39.835 --> 00:53:41.893
그런데 여러분이 딱 붙었어요.

00:53:41.993 --> 00:53:44.222
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 거죠?

00:53:44.322 --> 00:53:45.505
여러분께서.

00:53:45.605 --> 00:53:47.758
여러분께서 이러면 이거
뭐로 쓰는 겁니까?

00:53:47.858 --> 00:53:53.748
네가, 네 복수를, 2인칭 복수를
대신해서 표현하는 말로 지금 쓴 거예요.

00:53:53.848 --> 00:53:55.845
이걸 뭐라고 부르죠?
대명사라고 부르죠.

00:53:55.945 --> 00:53:59.788
그래서 여러분의 경우에는
합성대명사가 됩니다.

00:53:59.888 --> 00:54:01.849
아이참.

00:54:01.949 --> 00:54:04.863
아이, 참 이런 거 전부
다 감탄사, 감탄사인데이

00:54:04.963 --> 00:54:08.966
합쳐서 아이참이라는
합성감탄사가 형성됐죠.

00:54:09.066 --> 00:54:10.800
지난해 어떤 구조입니까?

00:54:10.900 --> 00:54:14.572
지난해, 지나다에서의
지나 그리고 해.

00:54:14.672 --> 00:54:18.278
그런데 지난 하면서 관형어 구성
취해주면서 해를 꾸며줬어요.

00:54:18.378 --> 00:54:21.921

지난해는 그림 품사가
명사가 되겠죠.

00:54:22.021 --> 00:54:26.815

덮밥, 덮다의 덮은
동사입니다, 덮은.

00:54:26.915 --> 00:54:28.500

동사의 덮이예요.

00:54:28.600 --> 00:54:29.689

그다음에 밥 명사였어요.

00:54:29.789 --> 00:54:33.214

그런데 덮밥 딱 붙여서
결국 쓰인 건 명사입니다.

00:54:33.314 --> 00:54:34.856

최종적으로 명사.

00:54:34.956 --> 00:54:37.408

첫품사 관형사였죠? 관형사 어근.

00:54:37.508 --> 00:54:40.410

그다음에 사랑은 명사 어근이죠.

00:54:40.510 --> 00:54:41.861

합쳐서 명사됐죠.

00:54:41.961 --> 00:54:43.309

첫사랑이, 첫사랑은.

00:54:43.409 --> 00:54:46.353

굳은살은 어근이 굳하고
그다음에 살일 거 아니예요.

00:54:46.453 --> 00:54:48.665

형태소를 끊으면 이렇게
끊어내야 되는 건데.

00:54:48.765 --> 00:54:51.903

최종 구성 요소는 이제 굳은하고
살이었던 거고요, 그렇죠?

00:54:52.003 --> 00:54:55.331

그럼 여기에서의 어근인
굳, 굳다 동사.

00:54:55.431 --> 00:54:57.553

다음, 살 형용사.

00:54:57.653 --> 00:55:01.249

여기 굳다는 동사랑 형용사랑
둘 다 쓰일 수 있어요.

00:55:01.349 --> 00:55:03.519

동사랑 형용사랑 둘 다
쓰일 수 있는 거고요.

00:55:03.619 --> 00:55:06.806

여기 어쨌든 이 곧 그리고 살.

00:55:06.906 --> 00:55:10.352

두 개의 어근이 합쳐져서 결국
최종적으로는 뭐가 됐다?

00:55:10.452 --> 00:55:11.664

명사가 된 거죠.

00:55:11.764 --> 00:55:14.104

곧은살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.

00:55:14.204 --> 00:55:17.327

또 새해, 새는 관형사,
해는 명사입니다.

00:55:17.427 --> 00:55:18.975

합쳐져서 뭐가 됐죠?

00:55:19.075 --> 00:55:21.247

새해에는 하고 명사로 쓸 수 있죠.

00:55:21.347 --> 00:55:27.445

이런 거, 이런 거 전부 다 뭐가 됩니까?
합성부사죠.

00:55:27.545 --> 00:55:30.313

반짝 부사, 반짝 부사,
이리 부사, 저리 부사.

00:55:30.413 --> 00:55:32.833

이렇게 부사, 부사 더해서
첩어 개념으로 만드는

00:55:32.933 --> 00:55:35.614

의성어, 의태어 같은 거
전부 다 부사가 많습시다.

00:55:35.714 --> 00:55:39.272

끓주리다 볼까요? 끓다와 주리다.

00:55:39.372 --> 00:55:43.932

끓다와 주리다 전부 다 동사들인데
합쳐서 합성동사된 거죠.

00:55:44.032 --> 00:55:46.307

다음 두세는요.

00:55:46.407 --> 00:55:48.392

두하고 세, 수관형사들인데.

00:55:48.492 --> 00:55:53.085

애네 합쳐서 역시나 관형사가 됐죠.

00:55:53.185 --> 00:55:55.239

두세는 관형사가 됐죠.

00:55:55.339 --> 00:55:58.043

두세 사람 이런 식으로 꾸밀
수 있게끔 쓴 겁니다.

00:55:58.143 --> 00:55:59.701
이것 구성 어떻게 됩니까?

00:55:59.801 --> 00:56:01.213
이는 뭐예요, 이는?

00:56:01.313 --> 00:56:04.248
지시관형사로 쓰였던 이가 될 텐데.

00:56:04.348 --> 00:56:06.316
또는 대명사로 쓰였던
이가 될 텐데.

00:56:06.416 --> 00:56:09.467
그것 뒤에 것이라고 하는
의존명사가 붙어 있는 구조예요.

00:56:09.567 --> 00:56:11.832
역시나 어근과 어근의
결합임은 분명하죠.

00:56:11.932 --> 00:56:13.262
각각 품사가 있었으니까.

00:56:13.362 --> 00:56:14.704
이것의 품사는 뭐니까?

00:56:14.804 --> 00:56:17.190
대명사죠, 대명사, 지시대명사.

00:56:17.290 --> 00:56:18.634
다음 온종일.

00:56:18.734 --> 00:56:21.737
온세상 할 때 온은
관형사, 종일은 명사.

00:56:21.837 --> 00:56:29.192
합쳐서 온종일 ~했다고 얘기했을
때 애는 이제 관형사가 되겠죠.

00:56:29.292 --> 00:56:33.089
부사가 되겠군요.

00:56:33.189 --> 00:56:35.545
앞서다, 앞서다.

00:56:35.645 --> 00:56:39.179
앞에 서다인데, 앞이라고 하는
명사에 서다 동사가 붙었어요.

00:56:39.279 --> 00:56:41.929
앞서다라고 했을 때
역시나 동사되죠.

00:56:42.029 --> 00:56:45.107
앞선다 이런 식으로 쓰일
수 있으니까, 동사.

00:56:45.207 --> 00:56:47.408

다음 이리저리 부사라고
말씀드렸습니다.

00:56:47.508 --> 00:56:49.704
이렇게 해서 합성어의
품사들을 잡아보는 거.

00:56:49.804 --> 00:56:51.510
그러니까 이렇게 해서
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.

00:56:51.610 --> 00:56:55.078
그러니까 우선 이것보다
품사를 판단하는 건

00:56:55.178 --> 00:56:58.798
여러분 당연히 니다, 는다 붙여서
동사, 형용사 판단하는 그 기준.

00:56:58.898 --> 00:57:01.459
애가 조사랑 붙일 수
있는지, 용언을 꾸미는지.

00:57:01.559 --> 00:57:05.105
이런 것들 따지는 거니까 이미
앞서 공부했던 지식을 가지고

00:57:05.205 --> 00:57:06.376
동원하면 되겠고.

00:57:06.476 --> 00:57:09.430
그보다 여러분 챙겨줘야
되는 건 우선 여기에서부터

00:57:09.530 --> 00:57:13.086
등장하는 여기 어휘들이 다
합성어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

00:57:13.186 --> 00:57:15.333
일차적인 작업인 거죠.

00:57:15.433 --> 00:57:19.877
다음, 대등 합성어의 경우를
먼저 보면 A하고 B의 결합.

00:57:19.977 --> 00:57:21.976
즉, 어근하고 어근이
지금 결합하는 거잖아요.

00:57:22.076 --> 00:57:24.646
그래서 어근하고 어근이 결합했는데.

00:57:24.746 --> 00:57:27.137
그것이 서로 간에 같은 성질.

00:57:27.237 --> 00:57:29.220
그러니까 이게 둘이
위상이 같다는 거예요.

00:57:29.320 --> 00:57:32.764
두 단어의 뜻을 따져보면 그

뜻이 같다는 게 아니라

00:57:32.864 --> 00:57:34.899

그 뜻의 위상, 힘이 같다.

00:57:34.999 --> 00:57:37.450

설명을 하기보다는 예를
보는 게 좋겠죠.

00:57:37.550 --> 00:57:40.769

애네가 일단 전부 다
합성어임은 분명하죠.

00:57:40.869 --> 00:57:43.178

논하고 발의 결합이고,
말하고 소의 결합에서

00:57:43.278 --> 00:57:44.636

ㄴ이 빠지는 것뿐입니다.

00:57:44.736 --> 00:57:48.948

다음에 팔하고 다리, 그다음에
한, 두, 그다음에 오다, 가다,

00:57:49.048 --> 00:57:51.582

뛰다, 놀다 이렇게 더해지는 건데.

00:57:51.682 --> 00:57:55.121

애네가 서로 간에 어근과
어근의 위상이 같아요.

00:57:55.221 --> 00:57:57.362

논발, 논하고 발이에요.

00:57:57.462 --> 00:57:58.822

마소, 말하고 소예요.

00:57:58.922 --> 00:58:00.330

팔다리, 팔하고 다리예요.

00:58:00.430 --> 00:58:02.363

한두, 하나하고 둘이에요.

00:58:02.463 --> 00:58:04.383

다음 오가다, 오고 가는 거예요.

00:58:04.483 --> 00:58:06.543

다음 뛰놀다, 뛰고 노는 거예요.

00:58:06.643 --> 00:58:07.992

뛰는 거, 노는 거예요.

00:58:08.092 --> 00:58:11.407

그러니까 이 둘이 위상,
위력, 힘, 이게 같아요.

00:58:11.507 --> 00:58:14.040

그래서 이랬을 때
우리는 뭐라고 본다?

00:58:14.140 --> 00:58:15.486

대등 합성어라고 보는 거죠.

00:58:15.586 --> 00:58:19.028

물론 두 개의 개념이 대등, 둘이
완전 위상이 똑같을 수 있고,

00:58:19.128 --> 00:58:20.799

반대, 상반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.

00:58:20.899 --> 00:58:23.638

예를 들면 남녀 같은 경우는
상반의 느낌이 날 수 있죠.

00:58:23.738 --> 00:58:25.320

오가다도 상반의 느낌이 납니다.

00:58:25.420 --> 00:58:26.464

상관없어요.

00:58:26.564 --> 00:58:28.070

둘의 위상이 같다는 거, 위상이.

00:58:28.170 --> 00:58:30.500

다음 종속 합성어.

00:58:30.600 --> 00:58:35.217

A하고 B의 결합이 주종, 선후,
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결

00:58:35.317 --> 00:58:36.726

종속 합성어라고 합니다.

00:58:36.826 --> 00:58:39.353

지금 논발이 논하고 발이었죠.

00:58:39.453 --> 00:58:42.905

그런데 꽃발은 꽃하고 발입니까?

00:58:43.005 --> 00:58:44.962

그렇게 따지지 않죠.

00:58:45.062 --> 00:58:49.087

발인데 꽃으로 이루어져 있는
발,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

00:58:49.187 --> 00:58:50.798

구조가 좀 다릅니다.

00:58:50.898 --> 00:58:54.541

논발은 논하고 발이지만,
꽃발은 꽃하고 발이 아니라

00:58:54.641 --> 00:58:58.200

꽃으로 이루어진 발, 꽃이
심어진 발, 그렇죠?

00:58:58.300 --> 00:59:01.585

배추발, 배추가 심어진 발,
마늘발, 마늘이 심어진 발.

00:59:01.685 --> 00:59:03.429

이런 것들은 종속으로
처리가 되는 거죠.

00:59:03.529 --> 00:59:05.283
다리인데 어떤 다리다?

00:59:05.383 --> 00:59:07.736
돌하고 다리가 아니라
돌로 된 다리.

00:59:07.836 --> 00:59:11.115
가방인데 책을 넣을 수 있는 가방.

00:59:11.215 --> 00:59:13.094
터는 공간이 짧아요.

00:59:13.194 --> 00:59:15.523
어떤 공간? 놀이를
할 수 있는 터.

00:59:15.623 --> 00:59:18.164
들어가다랑 오가다
한번 비교해 보세요.

00:59:18.264 --> 00:59:20.461
오가다는 오고 가는 거예요.

00:59:20.561 --> 00:59:25.915
오고 가는 건데, 애는
들어가다는 들어가는 쪽,

00:59:26.015 --> 00:59:29.730
가는데 가는 게 날아갈 수도
있고, 뛰어갈 수도 있고,

00:59:29.830 --> 00:59:33.747
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
가는 종류를 하나 얘기해준 거죠.

00:59:33.847 --> 00:59:38.606
그래서 들어가다, 들어가다는
여기에서 이제 선후나 인과적인

00:59:38.706 --> 00:59:40.000
느낌이 좀 나고 있는 거죠.

00:59:40.100 --> 00:59:41.742
그래서 또 뛰어가다도 마찬가지로.

00:59:41.842 --> 00:59:43.459
뛰어가다, 날아가다.

00:59:43.559 --> 00:59:47.146
가는 방법류를 설명해주려고
하는 거지 애가 들어서,

00:59:47.246 --> 00:59:50.728
드는 것과 가는 것을 따로따로
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

00:59:50.828 --> 00:59:55.786

그래서 들어가는, 가는데 들어서
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.

00:59:55.886 --> 00:59:58.206
또 뛰어서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.

00:59:58.306 --> 01:00:00.800
단순하게 오는 것, 가는
것, 뛰는 것, 노는 것.

01:00:00.900 --> 01:00:03.118
이렇게 해서 두 개를
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.

01:00:03.218 --> 01:00:05.795
애는 뛰는 거, 가는 거 이게
있는 게 아니라 가는 행동이

01:00:05.895 --> 01:00:07.402
뛰는 식으로 가는 거죠.

01:00:07.502 --> 01:00:10.123
가는 행동인데 들어가는
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.

01:00:10.223 --> 01:00:12.260
이런 맥락이라면 이건 뭐가 된다?

01:00:12.360 --> 01:00:13.962
중속으로 본다는 얘기죠.

01:00:14.062 --> 01:00:18.041
융합 합성어는 A하고 B의
결합이 새로운 의미를 형성.

01:00:18.141 --> 01:00:21.833
C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를 융합
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해요.

01:00:21.933 --> 01:00:25.407
예문을 보시면요.

01:00:25.507 --> 01:00:30.293
밤낮, 얼핏 구조만 보면 밤하고
낮이니까 대등인 느낌이 날 거예요.

01:00:30.393 --> 01:00:33.654
그러나 여러분, 이 밤낮은
밤낮 게임만 할 거니라고 하면

01:00:33.754 --> 01:00:36.268
24시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

01:00:36.368 --> 01:00:40.593
밤하고 낮 동안에 게임할거니가
아니라 늘이라는 의미를

01:00:40.693 --> 01:00:42.094
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.

01:00:42.194 --> 01:00:43.181

다음, 피땀.

01:00:43.281 --> 01:00:44.687
피하고 땀.

01:00:44.787 --> 01:00:47.289
부모님께서는 나를
키우느라 피땀 흘리셨다.

01:00:47.389 --> 01:00:50.055
땀은 좀 알겠어요, 땀은 좀
흘릴 수 있어요, 그렇지?

01:00:50.155 --> 01:00:52.706
그런데 피를 꼭 흘려야만
합니까, 자식 키울 때?

01:00:52.806 --> 01:00:53.778
그건 아니거든요.

01:00:53.878 --> 01:00:56.677
그래서 이 피땀이라고 하는 게
노력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.

01:00:56.777 --> 01:00:59.682
다음 집안, 우리 집안 망했어.

01:00:59.782 --> 01:01:03.303
집의 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니,
집의 안에 뭐가 문제 생겼어?

01:01:03.403 --> 01:01:05.747
인테리어가 안 좋아?
그게 아니죠.

01:01:05.847 --> 01:01:09.174
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
공동체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지

01:01:09.274 --> 01:01:12.726
진짜 구체적인 집 그리고
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.

01:01:12.826 --> 01:01:14.145
새로운 의미가 됐다는 얘기죠.

01:01:14.245 --> 01:01:16.997
정말 그, 정말 나
거기 바늘방석이었어.

01:01:17.097 --> 01:01:18.449
이런 표현 아십니까?

01:01:18.549 --> 01:01:21.004
바늘방석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?

01:01:21.104 --> 01:01:22.104
바늘이 있어요?

01:01:22.204 --> 01:01:23.994
아니면 방석을 앉았습니까?

그건 아니죠.

01:01:24.094 --> 01:01:26.942
불편했다, 그 자리는 너무
불편했다는 의미로 쓰는 거고요.

01:01:27.042 --> 01:01:29.178
보릿고개라고 하는 거
들어보셨습니까?

01:01:29.278 --> 01:01:35.291
예전에는 이제 보리를 수확하기 바로
직전에 한 4월이나 5월, 6월

01:01:35.391 --> 01:01:40.021
이즘이 굉장히 먹을 게
없어서 나무뿌리 캐 먹고

01:01:40.121 --> 01:01:43.181
되게 힘들게 살면서 죽기도
많이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.

01:01:43.281 --> 01:01:45.506
그 시기를 들어서
보릿고개라고 표현해요.

01:01:45.606 --> 01:01:49.637
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
있어서 보리를 먹기 위해서

01:01:49.737 --> 01:01:53.123
넘는 그 삶의 언덕,
고개라는 그런 의미로,

01:01:53.223 --> 01:01:55.756
그 고개라는 게 우리가
넘기 힘들잖아요.

01:01:55.856 --> 01:01:58.101
그래서 고비라는 의미를
좀 갖게 되는 거예요.

01:01:58.201 --> 01:02:01.031
그래서 보릿고개는 아주 힘든
시기라는 의미로 지금 쓰는 거죠.

01:02:01.131 --> 01:02:03.786
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융합
합성어로 처리가 됩니다.

01:02:03.886 --> 01:02:06.433
두 번째는 의미 범주를
우리가 따져봤고요.

01:02:06.533 --> 01:02:10.107
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
바로 형성 방법인데,

01:02:10.207 --> 01:02:14.933
형성 방법은 통사적 합성어와
비통사적 합성어를 나눌 거예요.

01:02:15.033 --> 01:02:18.734

통사적이라는 얘기는 우리
국어의 문장 구조,

01:02:18.834 --> 01:02:22.200

어순에 딱 들어맞게끔 형성이
됐다는 겁니다, 하시겠죠?

01:02:22.300 --> 01:02:26.490

그래서 그렇게 우리 문장의 어순에
자연스럽고 적합하게 맞은 것을

01:02:26.590 --> 01:02:28.083

통사적 구조라고 하는데.

01:02:28.183 --> 01:02:32.161

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, 비통사적
합성어를 제가 먼저 설명드려요.

01:02:32.261 --> 01:02:35.821

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
문제를 푸셔야 돼요.

01:02:35.921 --> 01:02:39.545

주어진 단어가 합성어인 것
먼저 찾으셔야 됩니다.

01:02:39.645 --> 01:02:41.494

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구나.

01:02:41.594 --> 01:02:44.968

애가 품사 뭐와 뭐에서 더해진
거구나라는 건 아셔야 돼요.

01:02:45.068 --> 01:02:49.742

그건 찾았다면 애가 통사냐
비통사냐 그걸 그다음에 물어본다면

01:02:49.842 --> 01:02:53.004

내가 지금 비통사를 알고
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

01:02:53.104 --> 01:02:56.557

비통사의 세 개에 해당하지
않으면 다 통사지, 뭐.

01:02:56.657 --> 01:02:58.460

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.

01:02:58.560 --> 01:03:01.609

그래서 비통사의 첫 번째
종류는 이런 방법입니다.

01:03:01.709 --> 01:03:03.751

늦더위라는 단어가 있어요, 맞죠?

01:03:03.851 --> 01:03:08.467

그런데 이 늦더위 구조를
보면 늦다라고 하는 형용사에다

01:03:08.567 --> 01:03:10.537
더위라고 하는 명사를 더한 거예요.

01:03:10.637 --> 01:03:13.125
어근과 어근의 결합이니
합성어는 맞는데.

01:03:13.225 --> 01:03:16.671
사실 이게 지금 빠져 있는
건 되게 어색한 구조예요.

01:03:16.771 --> 01:03:21.848
아까 덮밥도 봤어요,
덮밥도, 그렇죠?

01:03:28.396 --> 01:03:33.720
여기 덮은 같은 거 있어야
되는 거 아니에요?

01:03:33.820 --> 01:03:35.177
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

01:03:35.277 --> 01:03:36.759
없는 건 되게 이상한 거죠.

01:03:36.859 --> 01:03:37.913
그렇지 않습니까?

01:03:38.013 --> 01:03:38.992
안 이상하다고요?

01:03:39.092 --> 01:03:41.753
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늘
덮밥이라는 단어를 써왔기 때문에

01:03:41.853 --> 01:03:43.653
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.

01:03:43.753 --> 01:03:48.536
가령 예를 들면 작은형 같은
거 있잖아요, 작은형.

01:03:48.636 --> 01:03:50.407
작은형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

01:03:50.507 --> 01:03:52.660
이때 작은형은 형이 둘이 있어요.

01:03:52.760 --> 01:03:55.517
큰형 있고, 작은형 있고, 둘째
작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.

01:03:55.617 --> 01:03:58.479
그런데 여러분 작은형이 키가
작은 형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.

01:03:58.579 --> 01:04:00.297
만약에 키가 작은 형
이러면 띄어 써야죠.

01:04:00.397 --> 01:04:01.943

작은 띄고 형, 이렇게
써야 됩니다.

01:04:02.043 --> 01:04:04.553
그런데 둘째 형 얘기할 때 우리가
작은형 이렇게 쓰잖아요, 붙여서.

01:04:04.653 --> 01:04:06.628
한단어, 합성어 됐거든요.

01:04:06.728 --> 01:04:10.312
여기에서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
작다의 작이죠, 작다의 작.

01:04:10.412 --> 01:04:11.458
어근입니다.

01:04:11.558 --> 01:04:12.567
형, 명사죠.

01:04:12.667 --> 01:04:16.601
그러면 용언 어근에다 명사를
수식해주는 상황일 때

01:04:16.701 --> 01:04:19.122
이거, 이거 들어가는 게
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?

01:04:19.222 --> 01:04:23.884
이거 만약에 은 빼서 작형
이러면 안 어색하겠어요?

01:04:23.984 --> 01:04:27.358
우리가 늦더위, 덮밥이라는
단어를 늘 어렸을 때부터

01:04:27.458 --> 01:04:32.001
써왔기 때문에 안 어색한 것뿐이지
구조상 어색한 구조라는 거예요.

01:04:32.101 --> 01:04:38.091
왜? 용언의 어간이 명사를
뒤에다 두고 어간만 내놓고

01:04:38.191 --> 01:04:40.138
명사를 수식한다는 건
말이 안 된다.

01:04:40.238 --> 01:04:42.215
뭐가 필요했었다?

01:04:42.315 --> 01:04:46.742
바로 뭐가 필요했었다?

01:04:46.842 --> 01:04:50.489
전성어미, 관형사형 전성어미인
뭐가 있었어야 돼요?

01:04:50.589 --> 01:04:55.718
은이나 는이나 을이나 던이나
이런 것들이 들어와줘야

01:04:55.818 --> 01:04:59.077

자연스러운 구조인데,
이게 없다는 거예요.

01:04:59.177 --> 01:05:00.287

아시겠습니까?

01:05:00.387 --> 01:05:04.733

용언의 어간이 전성어미
없이 명사를 꾸며주는,

01:05:04.833 --> 01:05:06.613

체언을 꾸며주는 그러한
구조, 알겠죠?

01:05:06.713 --> 01:05:09.734

이러한 것들이 바로 비통사적
구조 첫 번째입니다.

01:05:09.834 --> 01:05:11.832

다음 두 번째.

01:05:11.932 --> 01:05:16.227

뛰놀다를 비통사적 구조 두 번째로
볼 수 있어요, 이런 방식을요.

01:05:16.327 --> 01:05:21.728

뛰놀다는 용언의 어간과 또
다른 용언이 붙어 있어요.

01:05:21.828 --> 01:05:25.681

뛰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다
놀다라고 하는 다른 용언이

01:05:25.781 --> 01:05:27.527

지금 붙어 있는 상태인데.

01:05:27.627 --> 01:05:30.045

이게 없죠, 뛰어 놀다가 없습니다.

01:05:30.145 --> 01:05:34.216

아까 전에 가다 같은 경우, 날아가다
같은 단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.

01:05:34.316 --> 01:05:36.519

날아가다.

01:05:36.619 --> 01:05:39.242

이 단어는 날다와
가다가 결합된 거죠.

01:05:39.342 --> 01:05:43.497

그런데 날다와 가다가 결합됐는데
중간에 뭐가 와 있죠.

01:05:43.597 --> 01:05:46.153

뭐? 아라고 하는
연결어미가 있어요.

01:05:46.253 --> 01:05:47.961

그럼 날가다 하면
이상할 거 아니에요.

01:05:48.061 --> 01:05:50.395
역시 마찬가지로 뛰놀다가
우리가 어렸을 때부터

01:05:50.495 --> 01:05:53.601
써왔으니까 이 단어가 안
어색한 것뿐이지만,

01:05:53.701 --> 01:05:55.954
구조적으로는 이상한 거예요.

01:05:56.054 --> 01:05:58.863
뛰어놀다와 같이 어 같은 게
있었어야 된다는 거죠.

01:05:58.963 --> 01:06:02.693
그래서 이런 뛰놀다와 같은
단어는 용언의 어간과

01:06:02.793 --> 01:06:05.298
용언이 결합할 때
뭐가 없기 때문에?

01:06:05.398 --> 01:06:10.098
연결어미 어라든지 고라든지
이런 식의 것들이 없다면

01:06:10.198 --> 01:06:11.927
비통사적 구조로 보는 거죠.

01:06:12.027 --> 01:06:14.463
우리 국어의 문장 구조에는
어색한 구조입니다.

01:06:14.563 --> 01:06:16.467
다음, 산들바람.

01:06:16.567 --> 01:06:17.856
산들거리는 바람.

01:06:17.956 --> 01:06:19.330
산들의 품사가 뭐죠?

01:06:19.430 --> 01:06:22.456
저런 거 의성어, 의태어
전부 다 부사 처리 됐었죠.

01:06:22.556 --> 01:06:26.672
부사는 물론 아주 특수하게
체언을 꾸밀 때가 있었죠.

01:06:26.772 --> 01:06:29.938
그러나 체언 꾸미는 게
본래적 기능이 아니에요.

01:06:30.038 --> 01:06:31.624
원래는 용언 꾸며야죠.

01:06:31.724 --> 01:06:35.417

그래서 부사가 체언을 꾸민다는
그 자체를 비통사로 봅니다.

01:06:35.517 --> 01:06:38.967

원래 이런 구조가 맞춰지려면
산들거리다와 같이

01:06:39.067 --> 01:06:42.562

용언을 만들어주고, 산들거리는
바람, 이렇게 붙인다면 모르겠지만

01:06:42.662 --> 01:06:47.133

이렇게 산들바람과 같이
곧바로 용언에, 다시요.

01:06:47.233 --> 01:06:50.157

부사에다 명사를 꾸미는
그런 구조라면

01:06:50.257 --> 01:06:51.880

비통사적 구조로 보게 되는 거예요.

01:06:51.980 --> 01:06:53.570

세 가지, 외울 수 있겠습니까?

01:06:53.670 --> 01:06:56.762

용언의 어간에 체언을 더하는 경우.

01:06:56.862 --> 01:06:58.602

뭐 없이? 전성어미 없이.

01:06:58.702 --> 01:07:01.026

용언의 어간에 용언을 더하는 경우.

01:07:01.126 --> 01:07:02.334

뭐 없이? 연결어미 없이.

01:07:02.434 --> 01:07:05.008

그리고 부사 어근에다 곧바로
체언을 더하는 경우.

01:07:05.108 --> 01:07:08.006

이 세 가지를 자꾸
되뇌어서 외워주세요.

01:07:08.106 --> 01:07:11.470

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
전부 다 합성어는 맞지만,

01:07:11.570 --> 01:07:14.656

비통사적 구조의 합성어라는 거.

01:07:14.756 --> 01:07:21.862

이걸 외워주면 나머지는
어근, 어근이네?

01:07:21.962 --> 01:07:24.458

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
세 가지는 아니잖아.

01:07:24.558 --> 01:07:25.818

그러면 당연히 통사인 거예요.

01:07:25.918 --> 01:07:27.191

통사의 예는 그냥 한번 쭉 볼게요.

01:07:27.291 --> 01:07:28.360

명사+명사.

01:07:28.460 --> 01:07:30.125

제일 기본적인 통사적 구조예요.

01:07:30.225 --> 01:07:31.517

명사에다 명사 더하는 거.

01:07:31.617 --> 01:07:36.268

지난봄은 두 번째, 용언의 관형사형에다 명사를 더하는 구조입니다.

01:07:36.368 --> 01:07:38.522

아까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.

01:07:38.622 --> 01:07:43.368

덮밥 같은 경우 보면 덮은 할 때는 같은 구조가 없는 건데.

01:07:43.468 --> 01:07:46.475

애는 지나다 할 때의 지나 용언의 어간 부분에다

01:07:46.575 --> 01:07:50.075

관형사형 전성어미 ㄴ 붙고 그리고 봄 붙이고.

01:07:50.175 --> 01:07:53.381

만약에 애를 지나봄 이러면 되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, 그렇지요?

01:07:53.481 --> 01:07:55.968

그래서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 통사적 구조.

01:07:56.068 --> 01:07:57.976

뭐가 있으니까? 관형사형이 있으니까.

01:07:58.076 --> 01:08:02.580

온종일, 온이라고 하는 관형사입니다, 저거 관형사.

01:08:02.680 --> 01:08:03.749

종일 명사잖아요.

01:08:03.849 --> 01:08:06.299

그러면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.

01:08:06.399 --> 01:08:10.165

부사가 명사를 꾸미는 건 어색하지만, 관형사는 명사 꾸미는 게

01:08:10.265 --> 01:08:11.605

제 본연의 임무예요.

01:08:11.705 --> 01:08:12.975

당연히 통사적이죠.

01:08:13.075 --> 01:08:14.408

다음, 돌아가다.

01:08:14.508 --> 01:08:16.117

아까 돌아가다 이러면 비통사예요.

01:08:16.217 --> 01:08:17.943

그런데 연결어미가 딱
보인다는 거죠.

01:08:18.043 --> 01:08:20.143

용언과 용언을 결합하는데,
뭐가 보여요?

01:08:20.243 --> 01:08:22.120

연결어미가 보입니다.

01:08:22.220 --> 01:08:23.860

힘들다.

01:08:23.960 --> 01:08:28.135

여러분, 자주 헛갈려하는 게
뭐냐면 조사가 빠져 있는 구조를

01:08:28.235 --> 01:08:31.372

가지고 자꾸 비통사로 착각하시는데,
여러분 우리 문장에서

01:08:31.472 --> 01:08:33.309

조사 맨날 빠지 않나요?

01:08:33.409 --> 01:08:37.545

나 밥 먹을래, 나는 밥을 먹을래.

01:08:37.645 --> 01:08:39.642

는이나 을 같은 거
막 빠지 않습니까?

01:08:39.742 --> 01:08:41.014

나 밥 먹을래.

01:08:41.114 --> 01:08:44.983

문장의 위치만 그대로 가면 조사
빠는 건 우리 일반적이예요.

01:08:45.083 --> 01:08:47.868

그러니까 조사가 빠지는 걸
비통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

01:08:47.968 --> 01:08:50.572

그래서 힘들다 같은
경우에는 힘이 들다에서

01:08:50.672 --> 01:08:52.010

이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.

01:08:52.110 --> 01:08:53.344
이런 건 꽤찮은 구조.

01:08:53.444 --> 01:08:55.142
그래서 통사적 구조라고
보는 겁니다.

01:08:55.242 --> 01:08:58.245
조사 생략의 경우에는 잘되다.

01:08:58.345 --> 01:09:01.841
역시 부사가 되다라고 하는
용언을 꾸며주는 거죠.

01:09:01.941 --> 01:09:04.226
부사가 용언 꾸미는 게
자연스러운 구조잖아요.

01:09:04.326 --> 01:09:06.750
그래서 이렇게 해서
부사+용언의 구조.

01:09:06.850 --> 01:09:09.471
이러한 종류로는 전부 다
통사적 합성어, 맞죠?

01:09:09.571 --> 01:09:12.768
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어
예가 많으니까

01:09:12.868 --> 01:09:15.853
통사적 합성어 구조를 외우지 마세요.
뭘 외워준다?

01:09:15.953 --> 01:09:18.478
비통사적 구조 세 가지를 다시.
뭐요?

01:09:18.578 --> 01:09:22.204
용언의 어간에다 관형사형
전성어미 없이 체언 더하는 거,

01:09:22.304 --> 01:09:26.256
용언의 어간에다 연결어미
없이 용언 더하는 거,

01:09:26.356 --> 01:09:28.368
부사에다 체언 더하는 거.

01:09:28.468 --> 01:09:31.913
이렇게 되는 세 가지를 알아두시고
합성어라는 것만 확인하시면

01:09:32.013 --> 01:09:35.744
나머지 통사, 비통사 구분하는
작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

01:09:35.844 --> 01:09:40.206
이렇게 해서 합성어나 파생어에 대한
구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,

01:09:40.306 --> 01:09:44.194

이제 여러분이 테스트지
보고 좀 많이 풀어보시고

01:09:44.294 --> 01:09:47.539

그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
대한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.

01:09:47.639 --> 01:09:49.318

수고하셨습니다.